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43호 【루계 제25917호】 주체107(2018)년 2월 12일 (월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여러 나라에서 단행본으로 출판, 게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자》를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에티오피아 평긴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로작발행식이 1월 30일에 진행되였다.

*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력사적인 신년사의 전문을 우간다전국항쟁운동기관지 《마불리크 렌즈》 1월 26일부가 게재하였다.

기관지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영상사진 문헌을 모시였다.

광명성절경축준비위원회

여러 나라에서 결성

광명성절경축준비위원회가 1월 26일 공산당 《로씨야의 공산주의자들》에서 결성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으로 공산당 《로씨야의 공산주의자들》 중앙위원회 위원장 엠. 아. 쑤라이낀과 부위원장 에쓰. 아. 딸린꼬비치가 선출되였다.

준비위원회는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다양한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 *

광명성절경축 에스빠냐준비위원회가 1월 30일에 결성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에스빠냐인민공산당 중앙위원회 국제비서 빅또르 마누엘 루까스가 선출되였다.

준비위원회는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생애와 업적을 칭송하는 토론회, 영화감상회 등 다채로운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 *

광명성절경축준비위원회가 2일 로씨야련방 레닌공산주의청년동맹에서 결성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1비서 워. 에. 이싸꼬프가 선출되였다.

준비위원회는 2일부터 17일까지를 경축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생애와 업적을 칭송하는 토론회, 영화감상회 등 다채로운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 *

광명성절경축준비위원회가 4일 알제리청년총동맹에서 결성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청년총동맹 위원장 무함마드 누와르 알 라비으 까바일리가 선출되였다.

준비위원회는 4일부터 16일까지의 기간에 경축모임, 영화감상회 등 다양한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 *

광명성절경축 프랑스준비위원회가 5일 빠리에서 결성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프랑스조선친선협회 위원장 베누아 베네데이가 선출되였다.

준비위원회는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생애와 업적을 칭송하는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6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 76돐에 즈음하여 5일 로씨야련방공산당 하바롭스크변강위원회에서 경축준비위원회가 결성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제1비서 알렉싼드르 그로모브가 선출되였다.

준비위원회는 2월 5일부터 4월 16일까지를 경축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빛나는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토론회, 영화감상회 등 다양한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 령

제2118호 주체107(2018)년 2월 9일

사회주의강국건설에 크게 이바지한 일군들에게

김정일훈장을 수여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로 튼튼히 무장하고 능숙한 정치사업과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대중을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여 당이 맡겨준 혁명임무를 훌륭히 수행함으로써 사회주의강국건설에 크게 이바지한 강남익, 윤경훈, 리영식, 리훈재, 강원애, 황옥화동지들에게 민족최대의 명절인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김정일훈장을 수여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평 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 령

제2119호 주체107(2018)년 2월 9일

신 금 성 동 지 에 게

김정일상을 수여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높은 창작적열정을 발휘하여 우리 당의 위대성과 주체조선의 일심단결의 위력을 내외에 널리 선전하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는데 크게 이바지한 신금성동지에게 민족최대의 명절인 광명성절을 맞으며 김정일상을 수여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평 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고위급대표단 남조선대통령과 우리 예술단의 축하공연 관람

【평양 2월 11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고위급대표단은 남조선의 문재인대통령내외와 함께 11일 서울에서 우리 예술단의 축하공연을 관람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김여정동지를 비롯한 우리 고위급대표단과 예술단의 주요성원들이 조명균 통일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원순 서울시 시장 등 남측인사들, 각계층 군중들, 서울주재 외교대표들과 공연을 함께 보았다.

문화성 국장 권혁봉동지와 삼지연관현악단 단장 현송월동지가 이끄는 우리 예술단은 제23차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 개막을 앞두고 8일 남조선 강릉에서 축하공연의 막을 올린데 이어 서울에서 또다시 공연무대를 펼치였다.

남조선각계의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킨 우리 예술인들의 공연을 보기 위해 각지에서 모여온 수많은 관람자들로 공연장소는 성황을 이루었다.

서곡 《만갑습니다》의 경쾌한 음악선률이 울리는 속에 소개자가 뜨거운 동포애가 담긴 북녘인민들의 인사를 전하자 관람석에서는 열렬한 박수와 환성이 터져올랐다.

우리 예술인들은 녀성중창 《비들기야 높이 날아라》, 경음악 《내 나라 제일로 좋아》, 현악합주와 녀성독창 《새별》 등 다채로운 종목들을 무대에 올렸다.

세계명곡들을 새롭고 특색있게 형상하여 펼쳐놓은 관현악련곡 《친근한 선률》에서 출연자들은 훌륭한 연주기량을 선보이며 관람자들의 찬탄의 목소리를 이끌어냈다.

공연무대에서 우리 예술인들이 남조선노래들을 부를 때에는 관중들이 노래에 맞추어 손을 흔들며 따라부르기도 하고 재청도 하였다.

공연분위기가 고조되는 속에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 단장은 무대에 올라가 남측방문에 대한 소감을 밝히고 《백두와 한나는 내 조국》의 노래를 직접 부르며 관중들의 관람열기를 더한층 고조시켰다.

북과 남의 예술인들이 함께 부르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 《다시 만납시다》의 합창으로 막을 내린 공연은 분렬의 력사에 종지부를 찍고 존엄높고 부흥하는 통일강국을 하루빨리 일떠세우려는 민족의 념원과 의지가 뜨겁게 맥박치듯으로 하여 관람자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기였다.

공연이 끝난 다음 김영남동지, 김여정동지는 문재인대통령내외와 함께 손을 흔들며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내였다.

남조선통일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서울시장이 무대에 올라 우리 예술인들에게 꽃다발들을 안겨주며 공연성과를 축하해주었다.

공연은 관람자들의 대절찬을 받았다.

한편 이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고위급대표단은 리락연 남조선국무총리가 마련한 오찬에 초대되였다.

오찬에는 우리 고위급대표단전원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남측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또한 우리 고위급대표단은 공연에 앞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차린 환송만찬에도 초대되였다.

오찬과 만찬은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다.

우리 나라 도서기증식 진행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우리 나라 도서기증식이 1월 30일 로씨야 싸할린주과학도서관에서 진행되였다.

도서관관장을 비롯한 여러 인사들과 군중들, 울라지보스또크주재 우리 나라 대표부 일군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기증식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이 전달되였다.

도서관관장은 령토나 인구수에 있어서 크지 않은 나라인 조선이 국제무대에서 제국주의세력과 당당히 맞서 자주권과 존엄을 굳건히 수호하고 있는데 대해 세계인민들은 기쁘게 생각하고있다, 조선인민은 앞으로도 자기가 선택한 길로 꿋꿋이 나아갈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부관장은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최근 조선인민이 국방력강화와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이룩한 성과들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하면서 오늘 기증받은 도서들을 통하여 조선에 대해 더 잘 알게 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고위급대표단 평양도착

【평양 2월 11일발 조선중앙통신】 제23차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 개막식에 참가하였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고위급대표단이 11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고위급대표단을 태운 우리 정부비행대 전용기 《참매-2》호기는 21시 55분경 인천국제비행장을 리륙하여 22시 40분경 평양국제비행장에 착륙하였다.

평양국제비행장 국기게양대에는 공화국기가 나붓기고있었다.

조선인민군 군종명예위병대가 항공역앞 정류장에 정렬해있었다.

김영남동지는 환영곡이 주악되는 속에 명예위병대 제1부대장의 영접보고를 받은 다음 조선인민군 군종명예위병대를 사열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김여정동지와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 최휘동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리선권동지, 기타 수행원들이 함께 왔다.

당과 정부의 간부들인 김영철동지, 양형섭동지, 리수용동지, 리용호동지와 무력기관 책임일군들인 박영식동지, 최부일동지가 대표단을 마중하였다.

내외의 기대와 관심을 불러일으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고위급대표단의 이번 남조선방문은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적환경을 마련하는데서 의의있는 계기로 되였다.

한평생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2월이다.

위대한 장군님을 그리는 인민의 마음 더욱 뜨거워지는 2월이다.

진정 날과 달이 가고 해가 바뀔수록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인민의 그리움은 끝이 없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장군님의 애국의 마음에는 언제나 인민이라는 두 글자가 꽉 차있었습니다.》

한평생 인민을 제일로 사랑하신분,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쏟고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이시다.

위대한 장군님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에게 보다 행복하고 풍족하며 문명한 생활을 안겨주겠는가 하는 생각뿐이시였다.

어버이수령님 그대로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을 우리 당과 국가활동의 최고원칙으로 변함없이 내세워오신 위대한 장군님.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당들도 많지만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내세우고 평범한 날에나 준엄한 시련의 나날에나 인민생활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최대의 힘을 기울여온 당과 국가는 없었다.

김일성종합대학에서 혁명활동을 벌리시던 시기에 벌써 산간지대들을 비롯하여 여러 지역을 현지지도하시며 인민의 생활과 사회주의농촌건설을 위하여 마음쓰시는 어버이수령님의 령도를 적극 보좌해드리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령도의 전기간 당과 국가가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향상시킬데 대한 자기의 최고원칙을 확고히 틀어쥐고나가도록 정력적으로 이끄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1970년대에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수준을 한단계 더 높이기 위하여 몰소 중점적으로 풀어야 할 인민소비품생산의 10가지 목표도 정해주시고 이미 마련된 경공업공장들을 만부하로 돌리면서 생산공정과 생산방법을 더욱 현대화, 과학화하고 새로운 경공업공장들을 건설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 수많은 현대적인 살림집들과 편의봉사기지들이 마련되고 우리 인민들의 생활은 크게 향상되였다.

그러나 인민들에게 보다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시려는 그이의 사랑은 끝이 없으시였다.

지금도 우리 인민은 주체73(1984)년 2월 16일 자신의 탄생일에도 인민생활문제를 두고 마음쓰시며 우리 일군들에게 그처럼 간곡한 가르치심을 주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모습을 잊지 못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날에 하신 가르치심은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가져옴으로써 우리 인민들에게 사회주의사회에 맞는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충분히 보장해주며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발양시킬수 있게 하는 강령적지침이였다.

인민들을 위해서는 타산을 앞세우지 않는 우리 당의 특유한 계산방법, 인민들의 생활에 편리를 줄수 있다면 없는 규정도 만들어내고 있는 규정도 바로잡는 전설같은 이야기도, 인민생활제일주의의 구호도 이 시기에 태여났다. 뿐만아니라 일군들속에서 경공업발전에 대한 옳은 관점과 립장이 확립되고 경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운동의 불길이 타오른것도 이 시기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1980년대에 들어와 창광거리에 우리 식의 현대적인 살림집들을 일떠세우신데 이어 평양시의 중심부에 현대적인 주택거리들을 련이어 일떠세우도록 하시여 수도의 면모를 일신시키고 살림집문제해결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가져오도록 하시였다.

당과 국가가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철저히 지켜나가도록 하기 위한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는 우리 혁명력사에서 가장 준엄한 시련의 시기였던 1990년대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도 뜨겁게 새겨져있다.

고난의 행군이 한창이던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경제문제와 인민생활문제를 푸는것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서거하시기 이틀전까지도 경제부문 책임일군들의 협의회를 소집하시고 지도하시였다고 간곡하게 가르치시였다.

그러시면서 사회주의 우리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고 우리 인민들을 남부럽지 않게 더 잘살게 하시려는것이 어버이수령님의 생전의 뜻이였고 념원이였다고 하시며 수령님의 유훈을 관철하여 수령님의 념원을 반드시 실현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그처럼 어려운 고난의 행군속에서도 우리 당과 국가활동의 최고원칙은 변함없이 고수되여왔다.

위대한 장군님의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속에 이 시기 생산과 건설이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에 더욱 철저히 복종되게 되였다.

생산된 경공업제품들이 우리 인민들의 복리에 이바지하고 인민생활을 높이는데 돌려지도록 여러가지 조치들이 취해졌으며 사회주의계획경제의 인민적성격이 더욱 뚜렷이 과시되게 되였다. 특히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한 여러가지 당 및 국가적시책들이 변함없이 실시되였다.

나라의 군력강화를 위하여 한푼한푼의 자금이 귀중한 때에도 무료의 무교육, 무상치료제를 비롯한 인민적시책들이 일관성있게 실시되였다.

그리고 수많은 현대적인 경공업생산기지들과 가금생산기지들, 기초식품생산기지들을 건설하는데 막대한 국가적투자가 돌려지게 되였으며 인민을 위한 명승지들과 문화휴양지, 극장과 영화관, 급양봉사기지들이 훌륭히 꾸려지게 되였다.

제국주의자들의 제재와 봉쇄책동이 끊임없이 감행되고있는 속에서도 우리 당과 국가는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웅대한 설계도를 펼치고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지펴올리며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을 과감히 벌려나갔다.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우리 인민은 지금 모진 곤난을 겪고있지만 그것을 이겨내면서 당에 충정을 다하고있다고 하시면서 인민생활문제를 결정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진정 어떻게 하면 우리 인민들을 잘살수 있게 하겠는가에 대하여 언제나 사색에 사색을 거듭하시며 크나큰 정력을 기울여오신 우리 장군님이시였다.

자신께서 더 할수 있는것을 못한것은 없는가, 아직 찾아가보지 못한 곳은 없는가, 인민들과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것은 없는가. …

우리 장군님께서는 인민을 위해 베푸신 은혜 바다를 이루진만 스스로 끊임없이 이런 사랑의 짐을 짊어지시고 언제나 이 땅우에 헌신의 자욱을 수놓으시였다.

정녕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여나가는 우리 당과 국가활동의 최고원칙이 고난과 시련속에서도 변함없이 고수되고 철저히 관철될수 있은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해주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고수해오신 인민생활을 높일데 대한 당과 국가활동의 최고원칙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밑에 더욱 철저히 구현될것이며 나날이 꽃피는 조국의 밝은 모습과 더불어 우리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의 력사도 변함없이 흐를것이다.

본사기자 김철혁

무리등에 깃든 사랑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나는 인민들이 좋아하면 더 바랄것이 없습니다. 인민들이 누리는 행복과 기쁨속에 바로 나의 행복과 기쁨이 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고난의 행군시기 지방의 어느 한 공장을 찾으시였을 때의 일이다.

공장에 도착하시여 이곳 일군들과 따뜻한 인사를 나누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생산현장으로 향하시였다.

그곳에서는 로동자들이 한창 무리등을 조립하고있었다.

그들의 작업모습을 눈여겨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못 반가운 표정을 지으시며 이 공장은 무리등을 잘 만드는 공장이라고 하시면서 확실히 무리등을 만드는데서 전통이 있다고, 그래서 자신께서는 무리등 하면 이 공장부터 생각한다고 교시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조립중에 있는 무리등 한개를 손수 들어 일군들에게 보여주시며 이 무리등은 어디에 쓰는지 알고있는가고 물으시였다.

뜻밖의 물으심에 일군들은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몰라 잠시 망설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느 한 일군을 바라보시며 어서 설명해주라고 하시는것이였다.

그 일군이 이 무리등은 농촌문화주택에 달아주려고 얼마전부터 생산하고있는 가정용무리등인데 벌써 도안의 여러 협동농장문화주택들에서 사용하고있다고 이야기하였다.

일군들은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사실 무리등이라고 하면 도시의 화려한 건물들에나 어울리는것으로 생각해온 그들이였다.

더우기 지금처럼 어려운 때에 농촌집들에 이런 현란한 무리등까지 달아주다니…

그 시기 각곳에서 중소형발전소들이 대대적으로 건설되면서부터 농촌사람들이 무리등을 요구하자 일군들은 도시의 수요도 충족시키지 못하고있는 형편인데 후에 보자고 하면서 밀어두었었다.

그러던 그들의 인식은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지도소식을 신문과 방송을 통하여 전해들으면서 점차 달라지게 되였다.

그렇게 되여 농민들을 위한 무리등생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였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장군님께 그토록 크나큰 기쁨이 될줄 어이 알았으랴.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가정용무리등을 만들어 농촌문화주택들에 달아주면 농민들이 아주 좋아할것이라고 하시면서 밤도 전기로 짓고 난방도 전기로 하고 거기에 무리등까지 척 달아놓으면 우리의 농촌은 더 살기 좋아질것이라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뜨거운 인민사랑을 절감한 일군들의 가슴마다에서는 절세위인의 숭고한 뜻을 심장깊이 새기고 인민을 위한 헌신적복무의 길을 힘차게 걸어갈 맹세가 불타올랐다.

본사기자 전광남

조국과 인민을 위한 현지지도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령도자욱을 가슴깊이 새겨간다. —철도성혁명사적관에서— 본사기자 김종훈 촬영

불멸의 혁명업적을 깊이 체득시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장군님의 한생은 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불세출의 위인의 가장 빛나는 한생이였습니다.》

명천군 마산리당위원회에서는 당원들과 농장원들속에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깊이 체득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을 참신하게 진행해나가고있다. 리당위원회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력사도록에 대한 해설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당원들과 농장원들이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 쌓으신 절세위인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깊이 새겨안게 하고있다.

리당위원회에서는 당세포와 근로단체조직들에서 사상교양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아침독보시간과 작업의 휴식시간을 비롯한 여러 계기들에 위대성교양사업을 활발히 벌려나가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고있다. 초급일군들부터가 한평생 인민행렬차를 타시고 강철의 의지와 초인간적인 정력으로 험난한 강행군길을 헤쳐오신 어버이장군님의 애국헌신의 세계를 깊이 체득함에 기초하여 농사차비로 들끓는 일터마다에서 대중의 정신력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위대성선전사업을 힘있게 벌리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농사에서 대풍을 안아오는것이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혁명업적을 깊이 빛내이는 길이라고 하면서 공화국창건일혼돐을 맞는 올해에 농업생산에서 혁신적성과를 이룩하자고 호소하였다.

실속있게 진행되는 위대성교양사업은 이곳 당원들과 농장원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지금 이곳 당원들과 농장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념원을 현실로 꽃피우기 위하여 더 높은 알곡증산으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령도를 충정으로 받들어갈 열의에 넘쳐 영농전투에서 집단적혁신을 일으켜나가고있다.

로농통신원 김성철

옮겨진 작업장

철치면 바다가 되고 쌓으면 하늘에 닿을 위대한 장군님의 한생의 업적을 헤치면 인민, 인민뿐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이 따란다면 하늘의 별도 따오고 물우에도 꽃을 피워야 한다는것이 장군님께서 지니고계신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이고 의지였습니다.》

어느해 겨울날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 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동행한 일군들은 로동자들의 알뜰한 일솜씨와 공장의 생산문화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현장을 둘러보시면서 건물의 층고와 생산면적, 설비대수를 헤아려보시고 작업장의 온도도 가늠해보시였다.

생산문화가 훤칠게 되였다고 치하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런데 자신께서 말하자는것은 건설에서 형식주의, 허례허식을 버리지 못하고있는것이라고 하시였다. 그러시고 이 건물만 보아도 쓸데없이 층고가 높고 생산면적이 넓기때문에 자재랑비는 물론이고 작업장이 아늑하지도 못하다고 지적하시였다.

이윽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로동자들이 입고있는 옷이며 신발을 더듬어보시였다. 그러시다가 한 로동자에게 다가가시여 그의 옷섶을 쥐어보시며 춥지 않는가고 조용히 물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에 기대공은 당황하여 《아닙니다. 이만하면 괜찮습니다.》라고 말씀올리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자기의 찬 손을 따뜻이 감싸쥐시고 녹여주시며 왜 춥지 않겠소, 작업장이 이렇게 서늘한데라고 하시자 기대공은 더는 참지 못하고 어깨를 들먹이였다.

온 작업장은 이름할수 없는 열기로 소리없이 끓어번지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기대공의 손을 선뜻 놓지 못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일군들에게 우리는 공장을 하나 건설하여도 거기에서 일할 로동자들부터 먼저 생각하여야 하며 작업장을 꾸릴 때에도 그것이 심지 로동자들에게 좋겠는가 하는것을 잘 타산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계속하시여 우리 일군들이 아직 인민의 참된 충복이 되자면 멀었다고, 때문에 자신께서는 늘 높은 로동계급성과 함께 인민성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는것이라고 간곡하게 말씀하시였다.

방금전까지만 하여도 작업장 건물이 크고 해괴하여 그이께 기쁨을 드릴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있던 일군들은 자책감에 머리를 숙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가 생산을 하고 건설을 하는것도 결국은 로동계급과 인민을 위해서이라고 하시면서 그런 관점이 서있어야 건물을 하나 짓고 일터를 하나 꾸려도 인민성을 분히 구현하고 실리를 보장할수 있다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쓸데없이 웅뎅그렇하고 그래서 온도도 낮은 작업장 작업실에 일하는 로동자들이 마음에 걸리시여 그곳을 인차 뜨지 못하시였다.

얼마후였다. 공장을 떠나시기에 앞서 이곳 로동계급이 만들어낸 여러가지 자력갱생제품들을 보시기 위해 한 건물에 들리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곳을 잠시 둘러보시였다. 그러시고는 이 방은 해도 잘 들고 따뜻하고 아담하다고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말없이 건물안을 살펴보았다. 사실 그 건물은 이곳 로동계급이 특별히 꾸밈을 돋어지은 휴게실이였다.

일군들을 둘러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면서 아까 들어본 작업장을 여기로 옮기자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로동자들에게 훌륭한 생산조건, 생활조건을 마련해주는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있을수 없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어 이 방을 당장 작업장으로 꾸리시오라고 지시하시였다.

방안에 적정이 파도치였다.

맑은 유리창으로 따스히 들며드는 해빛, 높지도 크지도 않아서 어느 구석에서나 아늑함이 느껴지는 휴게실에 떠도는 훈훈한 기운…

일군들의 귀전에서는 이제 이곳에서 흥겹게 일할 로동자들의 웃음소리가 울리는것만 같았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새 작업장에서 불편없이 일하게 될 로동자들의 모습을 그려보시는듯 환히 웃으시며 이왕 말이 난김에 당장 여기로 작업장을 옮깁시다, 그러면 나도 시름을 놓겠소라고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의 가슴은 끝없이 달아올랐다. 그 가슴마다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높이 울리였다.

(우리 장군님은 한없이 자애로운 인민의 어버이이시다!)

본사기자 김인선

울림폭포의 메아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는 그 누구보다도 조국과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시였으며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 한생을 깡그리 바치시여 조국청사에 영원히 빛날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신 절세의 애국자이십니다.》

언제인가 있은 일이다.

위대한 장군님을 모신 일행이 울림폭포를 향하여 걸음을 옮기고있었다. 아직 울림폭포까지 가자면 한참 가야 하는데 어디선가 쏴쏴 하는 소리가 울렸다. 울림폭포의 장쾌한 메아리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걸음을 멈추시고 한동안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였다.

그이께서는 일군들에게 울림폭포의 메아리는 언제 들어도 정답고 장쾌한 느낌을 준다고, 자신께서는 울림폭포에 올 때마다 그 메아리에 심취되군 한다고 자신의 심정을 피력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울림폭포의 메아리가 하루빨리 조선을 세계가 우러러보는 나라로 만들라고 우리의 심장을 팡팡 울려주는것만 같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누구나 범상하게만 생각해온 폭포의 메아리였다.

하지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 메아리를 자연의 현상으로만 여기지 않으시였다.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우리 인민군군인들이 미래에 대한 사랑과 락관을 가지고 찾아낸 새로운 절경인 울림폭포, 그 폭포가 울리는 메아리여서 그처럼 뜨겁게 화답하시는 우리 장군님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걸음을 옮기시면서 이 땅, 이 하늘아래 기어이 온 세상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주체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워야 한다고 간곡히 이르시였다. 계속하여 그이께서는 인민군군인들이 울림폭포를 찾아내여 인민의 문화휴식터로 훌륭히 꾸려놓지 않았더라면 이 메아리도 울림폭포와 함께 영원히 자연의 비밀속에 가리워져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당길수 없었을것이라고 하시면서 인민군군인들의 애국심도 높이 평가하시였다.

울림폭포의 메아리를 들으시면서도 주체조선을 더욱 빛내이실 결심을 굳히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우러르는 일군들의 생각은 깊었다. 그들의 귀전으로는 울림폭포의 장쾌한 메아리가 끊임없이 울려왔다.

그 메아리는 그들의 심장을 아니 온 나라를 흔들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뜻을 받들어 사회주의강국을 하루빨리 건설하라!

본사기자

과학자, 기술자돌격대운동에서 견지하여야 할 중요한 원칙

과학자, 기술자돌격대운동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창조하신 우리 식의 위력한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이다.

당의 령도밑에 힘있게 전개되고있는 과학자, 기술자돌격대운동은 지난 수십년간 혁명실천에서 그 우월성과 생활력이 뚜렷이 실증되였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주요전구들에서 제기되는 수많은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키동적으로 해결하여 전진의 돌파구를 열어놓았으며 혁명사적보존사업과 국방력강화, 사상문화전선에서 대혁신을 안아오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이 운동이 심화되는 과정에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의 사상정신적풍모에서도 커다란 전환이 일어났다.

과학기술은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주도해나가는 기관차이다. 언제나 당의 웅대한 구상을 높은 과학기술성과로 받들어가는 전심하고 재능있는 과학자, 기술자돌격대원들을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당과 조국의 크나큰 자랑이며 힘이다.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혁명적인 총공세가 벌어지고있는 지금이야말로 2월17일과학자, 기술자돌격대가 당의 핵심돌격대, 과학기술척후대로서의 위력을 최대로 떨쳐야 할 때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당이 마련해준 과학기술용마의 날개를 활짝 펼고 과학적재능과 열정을 총폭발시켜 누구나 다 높은 과학기술성과들을 내놓음으로써 부강조국건설에 이바지하는 참된 애국자가 되여야 합니다.》

당의 의도에 맞게 과학자, 기술자돌격대운동을 더욱 박력있게 벌려나가는데서 옳바른 원칙을 구현해나가는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과학자, 기술자돌격대운동에서 견지하여야 할 중요한 원칙은 무엇보다도 2월17일과학자, 기술자돌격대를 국가적으로 중요한 대상들에 파견하며 연구과제를 잘 설정하는것이다.

현실에는 과학기술적해결을 기다리는 대상들이 많다. 그렇다고 하여 과학자, 기술자돌격대를 이 모든 대상들에 다 파견하며 제기되는 연구과제들을 모두 맡겨줄수는 없다.

2월17일과학자, 기술자돌격대를 국가적으로 중요한 대상들에 파견하며 연구과제를 잘 설정한다는것은 당에서 중시하는 대상,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전략적의의를 가지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단위들에 내보내며 제일 절실한 과학기술적문제 즉 해당 단위의 기술력량으로써는 풀기 어려운 문제들, 주로 기초과학이나 첨단기술에 의거해야 풀수 있는 힘든 문제들을 돌격대과제로 제시한다는것이다.

이것은 이 연구집단의 특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원칙적요구이다.

2월17일과학자, 기술자돌격대의 본질적특성은 돌격대형식의 연구집단이라는데 있다. 돌격대는 말그대로 돌파구를 열어나가는 대오이다. 과학자, 기술자돌격대가 자기의 사명과 본분을 다하자면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중요한 대상 즉 해당 분야, 해당 부문에서 중추적인 위치에 있고 중심고리로 되는 단위들에 력량을 집중하여야 한다. 과학자, 기술자돌격대가 이런 단위들에서 당에서 제일 중시하는 문제, 하나를 앞세워 열백을 끌고나갈수 있는 요진통으로 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제때에 풀어나가야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돌파구가 열리고 다른 단위들과 현판단위들이 따라서게 되며 사회주의강국건설전반에서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날수 있다. 우리 당이 과학자, 기술자돌격대운동을 발기한 중요한 의도가 바로 여기에 있다.

2월17일과학자, 기술자돌격대의 주력을 이루는것은 대학과 전문연구기관의 교원, 연구사들로서 나라의 과학기술력량가운데서 핵심을 이룬다. 이들은 현실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제때에 풀어나가는것과 함께 기초과학연구와 첨단기술개발에서 세계적수준을 돌파해야 할 중요한 임무를 맡고있다. 그러므로 당에서 특별히 관심하는 대상, 남들이 하지 못하였거나 남들이 한것보다 더 월등하게 해결해야 할 과학기술문제들이 다름아닌 2월17일과학자, 기술자돌격대의 연구종자들이다.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에는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절실히 제기되는 과업과 그 실현을 위한 방도들이 뚜렷이 밝혀져있다.

2월17일과학자, 기술자돌격대의 진출대상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 당의 웅대한 구상을 관철하는데서 제일 중요한 위치에 놓여있는 단위들이다. 돌격대원들은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전원회의가 제시한 혁명적대응전략의 요구대로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고 인민생활을 개선향상시키는데서 가장 절실하게 나서는 문제들을 푸는데 주력하여야 한다.

과학자, 기술자돌격대운동에서 견지하여야 할 중요한 원칙은 다음으로 과학기술력량과 물질기술적수단을 집중적으로 동원하여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최단기간에 해결하는것이다.

과학의 길은 미지의 세계를 파헤쳐나가는 탐구과정이다. 과학기술연구개발에는 높은 탐구력을 가진 인재들과 물질기술적토대가 있어야 한다. 소극적이고 수동업적인 일본새, 보신주의, 요령주의, 본위주의를 비롯한 낡은 사상에 물젖거나 분산적으로 해보다 안되면 할수 없다는 식으로 대한다면 언제 가도 돌파구가 열릴수 없다.

오늘 우리 나라에는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이미 매개 부문과 단위마다 그리고 중요공장, 기업소들에 자체의 기술력량이 조직되여있고 해당 지역의 경제지리적특성에 맞게 전문연구기관들도 현장에 접근시키는 원칙에서 꾸려져있다. 이런 조건에서 과학자, 기술자돌격대운동을 조직전개에 대중운동방식으로 진행되는 과학기술연구활동이라는데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돌격대운동의 커다란 우월성이 있다. 우리는 이 우월성을 남김없이 발양시켜나가야 한다.

과학자, 기술자돌격대운동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은 또한 현실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우리의 원료와 자재, 설비에 의거하여 최상의 수준에서 해결해나가는것이다.

2월17일과학자, 기술자돌격대가 맡게 되는 연구과제들은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전략적의의를 가지는 단위들에서 제기되는 문제, 중심고리로 되는 과제들이다.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에 의거하는 수단이나 방법 그리고 그 해결수준은 해당 부문이나 분야 나아가서는 사회주의강국건설전반의 전진속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리가 건설하는 경제강국도 자립성과 주체성이 강한 나라이며 문명강국도 자체의 튼튼한 토대에 의거하여 인민들의 높은 물질문화적수요를 최상의 수준에서 충족시켜주는 나라이다. 그러므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대통로를 열고 최후승리를 앞당겨오자면 모든 분야에서 주체화, 자립화의 기치높이 원료와 자재, 설비의 국산화를 실현하고 자급자족하는 기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오늘 만리마대진군의 불길속에 우리 조국의 전진과 발전속도가 비상히 빨라지는데 집결한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은 전대미문의 제재압살책동에 미쳐날뛰고있다. 우리의 정상적인 무역활동과 경제교류까지 전면차단하고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생산정상화와 인민생활에 필요한 원료와 물자들을 들여오는것마저 가로막고있다. 적대세력들이 발악할수록 더욱 강해지는것이 우리 인민의 불굴의 정신력이며 자력자강의 힘이다.

지금 온 나라 각지에 과견된 2월17일과학자, 기술자돌격대원들은 우리의것에 대한 애착심을 소중히 간직하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해나가고있다. 우리 식의 주체적인 생산공정을 확립하고 원료와 자재, 설비의 국산화비중을 최대로 높이며 자립적경제구조를 완비하기 위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풀어나가는데서 과학자, 기술자돌격대원들은 누구도 대신할수 없는 큰 몫을 담당수행하고있다. 이것은 참으로 자랑스러운 일이다.

우리 당은 2월17일과학자, 기술자돌격대의 발자취가 새겨지는 단위마다 자력갱생, 자급자족의 전형단위로 변모되고 이 운동의 거세찬 물결속에서 모든 과학자, 기술자들이 개발창조형의 정평한 실력가, 제국주의를 과학기술적으로 압도하는 영예로운 승리자가 되리라는것을 굳게 믿고있다.

모든 과학자, 기술자돌격대원들은 당의 믿음과 기대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돌격대운동의 모성을 더욱 힘있게 울려 주체조선의 존엄과 위상을 세계만방에 떨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림혜선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받들어 황금벌의 력사를 더욱 빛내이자

다수확의 담보로 틀어쥔 두가지 문제

안주시일군들의 사업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과 당의 농업정책을 결사관철하는데 다수확의 열쇠, 비약의 지름길이 있다. 이것을 뼈속깊이 새긴 안주시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뜻깊은 올해의 알곡생산목표를 반드시 점령할 드높은 열의밑에 농사차비전투에서 혁신의 기상을 힘있게 떨치고있다.

당의 호소를 받들고 떨쳐나선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총공세의 불길높이 지난해 같은 때보다 유기질비료생산실적을 올리고 수만t이나 더 포전에 실어내는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일군들은 대중의 앙양된 열의에 전투적이며 혁신적인 작전과 지휘를 적극 따라세우고있다. 지난해농사의 경험과 교훈에 기초하여 올해 다수확의 방도를 실정에 맞게 찾아쥐고 전적으로 책임지는 립장에서 실천해나가고있는 일군들의 일본새는 뚜렷한 성과로 이어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일은 자기가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립장에서 맡은 사업을 혁명적으로 해나가야 합니다.》

알곡증산을 위해 일군들이 무엇보다 중시한것은 물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는것이였다. 알곡생산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경지면적에서 다같이 정보당 수확고를 높여야 하는데 그러자면 물이 부족한 포전들에서도 다수확을 무조건 내야 한다고 보았기때문이였다.

지난해 남침, 송학협동농장을 비롯한 적지 않은 농장들에서 알곡 정보당 수확고를 전에 없이 높이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일부 농장들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였다.

다수확운동을 다같이 벌리였지만 왜 이런 차이가 생기였는가. 일군들은 여러 각도에서 분석해보았다. 중요한 원인의 하나가 뒤떨어진 농장들에 물이 부족한 포전들이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그 면적은 결코 적은것이 아니였다. 물문제를 끝까지 책임지고 풀었더라면 보다 좋은 알곡생산성과를 거둘수 있었다는 생각으로 일군들은 자신들을 아프게 채찍질하였다.

일군들이 맡은 사업을 전적으로 책임질 때 당의 농업정책관철에서 빈구석이 생겨나지 않게 된다.

물문제를 해결할데 대한 당의 뜻을 결장을 볼 각오를 가지고 실천하는 결사관철의 기풍이 우리 사업에서 과연 어떻게 발휘되였던가.

돌이켜볼수록 잊게 되는 교훈이 컸다. 그만큼 분발심도 강해져 그전에는 엄두를 못 내였던 대담한 목표를 세우게 되였다.

올해농사에서 물부족지가 없도록 하자.

이 목표수행을 위한 일군들의 사업에서 주목되는 점이 있다. 아래에 과업을 주고 그 집행을 독촉하는 방법으로가 아니라 시작부터 자신들이 주인이 되여 책임지고나선것이다.

우리가 기관차역할을 바로할 때 대오가 힘차게 전진한다.

시당책임일군은 이런 관점에서 앞장에 섰다. 그는 해당 부문 일군들과 함께 룡연협동농장 제3작업반포전, 상서협동농장의 천수답을 비롯하여 여러 농장의 물부족지들을 하나하나 돌아보면서 실태를 깊이있게 료해하였다. 다른 일군들도 대상들을 맡고나가 료해사업을 심화시키였다. 그 과정에 물문제를 풀수 있는 현실적인 방도들을 찾게 되였다.

한가지 실례를 보자. 원풍협동농장의 여러 작업반들에서는 평남관개물길에 물이 있지만 그 리용대책이 바로서있지 않아 농사에 지장을 받았다. 일군들은 혁신적인 안목으로 따져본 결과 얼마든지 이 문제를 해결할수 있다는 신심을 가지게 되였다. 평남관개의 끌물길의 통수능력을 확장하여 양수기의 능률을 높이며 불리한 조건으로 물길을 련결할수 없는 곳에는 보막이를 하고 도로횡단암거를 설치하면 이 작업반들에 물이 원만히 보장되게 할수 있었다.

한걸음을 걸어도 걸실을 얻는 책임적인 걸음을 걸어야 한다.

일군들은 이런 자각을 안고 부지런히 포전을 밟으며 현지에서 새 양수장을 건설하고 천수답에 능력이 큰 굴포를 형성하는 등 세부적인 계획들을 작성하였다. 이 사업이 방대한것만큼 농업부문만이 아니라 시적인 힘을 동원하여 양수기와 관, 세멘트를 비롯한 설비, 자재 그리고 로력문제를 풀어 무조건 해내기 위한 통이 큰 작전을 하고 완강하게 내밀었다.

일군들이 다수확의 담보로 또 한가지 틀어쥔것은 지력개선이였다.

우량종자와 다수확농법은 그 도입대상이 땅이다. 결국 지력을 높여야 올해 농업부문앞에 제시된 과업관철에서 큰 성과를 거둘수 있다.

이로부터 일군들은 질좋은 유기질비료생산을 늘이는 문제를 중시하였다.

우선 거름을 잘 썩이는데 깊은 주의를 돌리였다. 가을에 낟알짚으로 거름더미를 쌓은 후 제때에 뒤적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았던것이다. 때문에 그런 더미들에 물이나 진거름물을 충분히 주면서 잘 썩어 포전에 내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특히 물이 부족한 지역의 농장들에서 품을 들여 이 사업을 실속있게 하도록 요구성을 높이였다. 그리하여 농장들에서는 몇대의 트락토르나 탈구지를 준비하여 물운반을 전적으로 하고 진거름물을 정상적으로 부어주면서 거름을 잘 썩이기 위한 된바람이 일게 되였다.

농장들에서 《신양2》호복합균에 의한 람조류발효퇴비생산에 전에 없이 적극적으로 달라붙게 된것도 일군들이 지력을 높이기 위한 현실적인 방도를 찾아 내린 결과이다. 그것에는 일부 농장들에서 이 퇴비를 생산리용하였다. 일군들이 현지에 나가 료해한데 의하면 생산원가가 적고 다른 람조류발효퇴비에 비해 생산공정도 단순하여 농업근로자들의 호평을 받고있는 퇴비였다. 이들은 비료효과가 높고 대중의 생산의욕을 불러일으킬수 있는 이 퇴비생산방법을 대대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하고 필요한 균을 확보하여 즉시 농장들에 공급해주었다.

한줌의 거름이 되여서라도 뜻깊은 올해의 알곡생산목표를 반드시 수행하자.

일군들은 이런 립장에서 유기질비료원천도 찾았다. 시내에 있는 못에서 수천t의 감탕을 파내여 농장들에 보내주기 위한 방도도 이렇게 찾은것이였다.

뜻깊은 올해의 알곡생산목표를 반드시 점령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 펼쳐주신 황금벌의 새 력사를 끝없이 빛내여나가자는 일군들의 호소에 시안의 청년들이 호응해나섰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과 당의 높은 뜻을 받들어갈 불같은 각오를 안고 이들은 청춘의 열정으로 언 대기를 녹이면서 감탕파기전투를 힘있게 벌려 열흘남짓한 기간에 맡겨진 계획을 훌륭히 수행하였다.

끝까지 책임질 각오로 헌신할 때 다수확의 담보를 반드시 마련할수 있다. 이것을 명심한 일군들은 성과가 오를수록 더욱 분발해나서고있다.

본사기자 김 성 철

현실적인 방도를 찾아쥐고

함주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하여서는 당의 농업정책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어야 합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펼쳐주신 황금벌의 새 력사를 끝없이 빛내여갈 일념안고 새해농사차비전투에 떨쳐나선 함주군안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날마다 좋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주목되는것은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일군들이 자체의 실정에 맞는 다수확의 현실적인 방도를 찾아 예견성있게 내밀고있는것이다.

유기광물질복합비료생산을 위한 원료확보사업을 우선시한것이 대표적실례이다.

경영위원회일군들이 이것을 중시하게 된것은 지난해농사과정에 얻은 좋은 경험이 있기때문이다. 지난해 군적인 비료보장조건은 불리하였다. 그러나 일군들은 당의 의도대로만 하면 반드시 다수확을 거둘수 있다는 배심을 안고 적은 량의 비료를 효과있게 리용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갔다. 그 과정에 유기광물질복합비료에 눈길이 쏠렸다.

이 복합비료는 여러가지 미량원소들이 들어있어 농작물의 생육에 유리한 조건을 지어준다. 뿐만아니라 화학비료의 효과성도 높일수 있게 한다.

이 비료속에 들어있는 활성화된 부민산이 질소성분과 결합되여 비료손실을 막아주기때문이다. 더우기 자기 지방의 흔한 원료를 가지고도 만들수 있어 좋았다.

이렇게 되여 지난해 군안의 전반적인 농장들에서 이 복합비료를 생산리용하게 되였다. 가을의 결실은 이들을 놀래웠다. 이 복합비료를 리용한 포전들에서 정보당 평균 수백kg, 최고 2t까지의 증수효과를 보았던것이다.

이를 놓고 경영위원회일군들은 새로운 결심을 가다듬었다.

현실은 농업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자기 땅에 발을 더욱 붙이고 자기 힘과 기술, 지원에 의거하여 더 많은 대용비료를 생산해낼것을 요구하고있다. 자체실정에 맞게 제힘으로 만든 대용비료를 적극 리용한다면 알곡생산목표를 점령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것이다.

이런 각오안고 분발해나선 일군들은 지난해보다 더 많은 유기광물질복합비료를 생산할 목표를 세웠다. 그리고 원료확보사업을 짜고들었다.

그리하여 수백t의 진거름과 집짐승배설물을 비롯한 원료들을 확보할수 있게 하였다. 특히 일군들은 어느 한 원료가 많이 매장되여있는 용지구에 전투파지를 정하고 올해농사에 필요한 량을 짧은 기간에 확보하기 위한 사업을 패기있게 밀고나갔다.

군애국복합미생물비료공장에서는 원료가 확보되는족족 잘 말리워 분쇄하기 위한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어놓았다.

결과 1천여t의 복합비료원료 확보 및 가공을 지난 시기에 비해 훨씬 앞당겨 끝낼수 있게 되였다.

경영위원회일군들은 《신양2》호복합균에 의한 발효퇴비생산에도 힘을 넣었다. 거름원천이 부족한 군의 실정으로 볼 때 효과성이 높은 유기질비료를 생산리용하는것이 합리적이였던것이다.

우량품종과 다수확농법도입의 성과는 높은 지력에 의해 담보된다. 이를 명심한 일군들은 우월성이 확증된 발효퇴비생산을 계획성있게 밀고나갔다. 이들은 지난해보다 2배로 높이 세운 계획에 비추어 포전에 낼 발효퇴비생산량을 다산하였다. 그리고 농장들에서 일정계획을 무조건 수행하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또한 발효퇴비생산에 필요한 종균보장을 선행시키면서 농장들에 일군들을 내보내여 그 질이 철저히 보장되도록 요구성을 높여나갔다.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속에 수만t의 질좋은 발효퇴비들이 생산되였다.

알곡증산의 방도를 현실에서 찾아쥐고 하나하나 실천해나가고있는 이곳 일군들의 진취적인 일본새는 긍정적이다.

방 영 진

뜨락또르가동률을 높인 비결

사리원시 만금남새전문협동농장에서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안고 사리원시 만금남새전문협동농장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자체의 힘으로 뜨락또르수리정비를 빈틈없이 끝내여 많은 거름을 포전들에 실어낼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았다. 보다 눈길을 끄는것은 농장일군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뜨락또르들의 가동률이 높아져 거름운반실적이 나날이 오르고있는 사실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자기 사업에 대한 높은 책임감과 일욕심, 진취적인 사업태도를 가지고 최대의 마력을 내야 하며 당과 인민앞에 자기의 충실성과 실천력을 평가받아야 합니다.》

거름생산과 실어내기를 최적기에 질적으로 끝내자면 농장의 현 조건에서 무엇을 틀어쥐고나가야 하겠는가. 모든 일군들은 문제해결의 중요한 방도의 하나를 뜨락또르들을 자체의 힘으로 수리정비하여 수천t의 거름운반을 선행시키는데서 찾았다.

그런데 부속품을 비롯하여 걸린것이 많았다. 하지만 김명환관리위원장의 립장은 명백하였다.

일이 잘되고 못되는 원인은 조건에서의 차이가 아니라 당정책을 대하는 사상관점에서의 차이, 두쟁기풍에서의 차이에 있다. 과학기술에 기초한 자강력을 비약의 보검으로 틀어쥐고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시켜 이 문제를 농장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자.

그가 이런 결심을 하게 된데는 사연이 있었다. 지난 시기 농장에서는 뜨락또르들의 수리정비를 관리위원회적인 사업으로 틀어쥐고 일관하게 밀고나가지 못한 결과 많은 자재와 로력이 들었다. 이뿐만이 아니였다. 수리기지도 잘 꾸려놓지 못하여 바쁜 영농철에 뜨락또르에 고장이 생겨도 어간만 좀이 들지 않았다.

관리위원장은 초급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이 문제를 자체의 힘으로 해결할것을 결심하였다. 이 문제를 놓고 반신반의하는 사람도 없지 않았다.

이때 김영춘초급당위원장은 그의 의견을 적극 지지해주었다.

우리 일군들이 앞장에 설 때 못해낼 일이 없다. 힘들더라도 기어이 이 문제를 해결하여 올해농사에서 대풍을 마련하고 협도업적단위의 영예를 빛내이자.

이렇게 초급당위원장은 작업반 초급일군들을 고무추동하였다.

두 일군의 한목소리에서 신심을 얻은 작업반초급일군들은 지혜를 합쳐가며 빈틈없이 작전하였다.

일군들은 사회주의주타적전방을 지켜선 지휘관이라는 높은 자각을 안고 뜨락또르중요부속품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발이 닳도록 뛰여다녔다. 기계화작업반장, 기술자들, 운전수들도 일군들의 뒤를 따라 이 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그들은 선반, 볼반 등 기계설비들의 가동률을 높여 부속품들을 생산하고 뜨락또르를 수리정비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모든것을 다 바치였다.

늘 전투현장에서 살다싶이 하며 당의 뜻대로 농사일의 기계화비중을 높이기 위하여 아글타글 노력하는 관리위원장, 초급당위원장의 모습은 일군들을 고무추동하였다.

모든 사업의 성패는 그것을 조직집행하는 일군들의 역할에 크게 달려있다.

일군들모두가 공화국창건 일흔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대담한 작전과 능숙한 지휘, 이신작적으로 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는 다수확운동의 선구자가 될 각오를 안고 온반문제해결의 앞장에 섰다. 이들은 작업반, 분조들에 내려가 부림소들을 담당하고 영양관리에서 제기되는 문제들도 제때에 풀어나갔다.

이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뜨락또르들의 가동률이 높아지고 부림소영양관리가 잘되여나갔다. 그만큼 거름실어내기전투에서는 현일 높은 실적이 기록되였다.

이 농장 일군들의 사업은 우리 일군들이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뚫고나갈 방도를 언제나 자기 단위의 현실과 자체의 힘에 의거하여 찾아내고 완강하게 실천해나갈 때 아무리 어려운 조건에서도 끊임없는 혁신을 창조할수 있다는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본사기자 김 강 철

혁신에로 이끄는 완강한 실천력

순안구역 구서농장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농업부문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은 농사를 잘하여 농업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는것입니다.》

농사차비를 신속있게 하라는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이며 당정책적요구이다. 이것을 깊이 명심하고 새해농사차비전투를 과학농사성과를 담보할수 있게 내밀고있는 순안구역 구서농장 일군들의 헌신적인 일본새가 눈길을 끈다.

지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과학적으로 짜고든것만 놓고보아도 그렇다.

토지는 농업의 기본생산수단이다. 따라서 지력을 높이지 않고서는 과학농사에서 성과를 거둘수 없다. 이로부터 김홍영관리위원장을 비롯한 농장일군들이 무엇보다 중시한것은 거름생산문제였다.

물론 이 사업은 해마다 진행되군 하였었다. 하지만 포전마다 토양특성이 차이나고 그에 따라 요구하는 영양성분들도 서로 다르다는 사실은 일군들로 하여금 거름생산의 질보장에 보다 큰 힘을 넣게 하였다.

농장의 과학농사를 전적으로 책임질 각오를 안고 분발해나선 일군들은 해당 단위와의 련계밑에 포전별, 필지별토양특성을 빠짐없이 장악하였다. 그리고 과학적인 분석자료에 기초하여 매 포전담당자들이 생산해야 할 거름의 량과 질을 정확히 정해주었다. 또한 생산된 거름은 홍성호기사장을 비롯한 기술일군들이 합격으로 평가한 조건에서만 포전에 내도록 하였다.

이런 조직사업들은 즉시 실천에 옮겨졌고 응당한 결과를 안아왔다.

량적지표에만 원심을 쓰던 전 향들이 근본적으로 극복되였고 누구나 질보장에 각별한 관심을 돌리며 한줌의 거름이라도 더 생산하기 위해 애썼다. 특히 과학기술적요구를 철저히 지켜가며 많은 량의 거름을 생산한 관리위원장의 이신작칙은 열백마디의 말을 대신하는 힘있는 정치사업으로 되였다. 그뒤를 작업반초급일군들이 적극 따라섰다. 농업근로자들은 승벽내기로 거름더미를 늘여나갔다. 농장적인 거름생산실적이 하루가 다르게 무쩍 뛰여올랐다. 결과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5배이상되는 질좋은 거름이 생산되여 포전으로 나갔다.

농장일군들은 가루거름생산도 놓치지 않고 내밀었다.

지난 시기 농장에서는 진거름과 탄배설물을 말리웠다가 해당시기에 비료처럼 리용하였는데 효과가 매우 뚜렷하였다. 어떤 측면에서는 화학비료보다 더 좋다는것이 농업근로자들의 일치한 견해였다. 그리하여 올해에는 더 높은 가루거름생산목표가 세워졌다. 헐치 않은 과제였지만 일군들무리가 그 수행의 앞장에서 어깨를 들이밀며 헌신하니 그다음의 일은 저절로 풀려나갔다. 집단적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른 결과 모든 작업반들에서는 한해농사에 필요한 가루거름의 절반이상의 량을 마련하게 되였다. 이것은 화학비료를 적게 치고도 농사를 잘 지을수 있는 또 하나의 과학적탑보로 되였다.

농장적으로 물보장조건이 제일 불리한 포전을 자진하여 담당한 사실을 놓고서도 이곳 일군들의 남다른 헌신성을 엿볼수 있다.

사실 물보장조건이 좋은 포전은 너나없이 욕심을 낸다. 그러나 제일 마지막에 물을 대는 포전은 선뜻 받아나서는 사람이 별로 없다. 바로 이런 불리한 포전들을 다툼아닌 농장일군들이 자진하여 담당한것이다. 관리위원장만 놓고보더라도 20여정보의 포전을 적신 후에야 물이 와닿는 곳을 담당하였다. 농장의 모든 일군들이 이런 식으로 조건이 불리한 포전들을 하나씩 맡아나섰다. 이것을 보며 농업근로자들은 책임감을 더욱 깊이 자각하게 되였고 올해에는 기어이 다수확을 낼 결의로 가슴 불태웠다.

대중의 열의는 더욱 고조되였다. 새해농사차비의 모든 항목들이 높이 세운 일정계획대로 폭폭 추진되여나갔다.

그뿐이 아니다.

농업과학기술보급사업을 단위별실정에 맞게 조직하여 실효성을 높인것도, 깊은층비료주기를 위해 알비료생산공정을 틀어 꾸려놓고 필요한 재료들을 충분히 마련한것도, 품이 많이 드는 모판자재들을 짧은 기간에 확보할수 있게 한것도 다 올해의 과학농사성과를 위해 일군들이 발이 닳도록 뛰여다니며 헌신한 결과에 이룩된 결실이다.

일군들이 앞채를 메고 헌신한것만큼 대중이 따라서고 그래야 모든 농사일이 당정책적요구에 맞게 진행될수 있다. 이렇게 놓고볼 때 말보다 실천을 앞세우며 당의 과학농사방침관철을 위해 늘 미리를 쓰고 앞장에서 헌신해나가는 이곳 일군들의 일본새가 돋보인다.

본사기자 김 성 일

풍요한 가을을 안아올 일념안고 농사차비전투를 힘있게 벌리고있다.
—숙천군 운정농장에서— 본사기자 최 충 성 찍음

당의 크나큰 믿음을 심장깊이 새겨안고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3대혁명소조원들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3대혁명소조원들은 기술혁명의 척후병, 기수로 내세워준 우리 당의 크나큰 믿음을 피끓는 심장마다에 소중히 간직하고 강철생산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혁신전투에서 3대혁명전위의 값높은 영예를 빛내이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3대혁명소조원들은 생산과 건설에서 제일 걸리고있는 문제, 기계설비와 생산공정을 현대화하는데서 나서는 새로운 과학기술적문제들을 기술혁신의 종자로 찾아쥐고 연구를 심화시켜 훌륭한 결실을 가져오도록 하여야 합니다.》

지난해에 강선의 3대혁명전위들은 뚜렷한 창조의 자욱을 새기였다.

그들은 강철생산에 절실히 필요한 남비정련로의 수명을 늘일수 있는 새로운 내화물을 연구도입하고 쇠물남비가열공정에 산소와 미분탄을 리용하기 위한 가열장치를 제작하고 받아들이도록 한것을 비롯하여 철생산공정을 현대화하는데서 제기되는 많은 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여 기업소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창조적지혜와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 가치있는 기술혁신성과를 이룩한 이곳 3대혁명소조원들에게 크나큰 은정을 안겨주시였다.

받아안은 사랑과 믿음에 보답을 따라세우지 못한다면 우리를 어떻게 참된 3대혁명전위들이라고 하겠는가.

이런 자각과 맹세로 심장을 불태우며 강선의 3대혁명전위들은 뜻깊은 올해에 보다 큰 걸음을 내짚었다.

3대혁명소조원들인 배인철, 강정일동무들의 기술혁신과제수행을 통해서도 그것을 잘 알수 있다.

그들이 기업소에 가성소다생산공정을 꾸리기 위한 연구사업에 달라붙었을 때였다.

고온공기연소식가열로의 주원료인 알탄성형에 필요한 점결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또 기업소의 경영활동을 위해서도 그것은 꼭 필요한 생산공정이였다.

문제는 다른 기업소에 찾아가 생산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기업소의 현실적조건에 맞게 공정을 새롭게 확립해야 했는데 그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였다. 품이 많이 드는 일이였다.

그런것으로 해서 일부 사람들은 소조원들에게 그렇게 힘든 과제를 안고 뛰여다니느라 하지 말고 소조기간에 성과도 내고 평가도 받을수 있는 쉬운 과제들을 맡아안을것을 권고하였다.

하지만 소조원들의 대답은 한결같았다.

우리 당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를 심장깊이 새기고 결심하고 달라붙으면 못해낼 일이 없다!

소조원들은 지체없이 탐구의 먼길을 떠났다.

그들은 먼저 해당 기업소의 당조직을 찾아갔다.

그 기업소의 당일군들은 우리 당의 부강조국건설구상을 과학기술성과로 빛내여나가려는 각오와 결심이 투철하고 높은 과학기술적자질과 능력을 겸비한 3대혁명소조원들의 절절한 호소를 뜨겁게 받아들이였다.

그곳 당조직에서는 강선의 3대혁명전위들이 가성소다생산공정을 하루빨리 파악할수 있도록 기업소의 일군들과 기술자들과 만나 구체적으로 토의할수 있게 해주었으며 그들의 숙식조건까지도 친혈육의 심정으로 돌보아주었다.

이렇게 되여 3대혁명소조원들은 짧은 시일안에 가성소다생산공정에 대한 기술문헌자료들과 설계도면, 생산공정흐름까지 다 파악하고 그 기술을 기업소에 받아들일수 있는 기술적준비에 들어갈수 있었다.

이뿐이 아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력사적인 신년사에서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리윤일, 리명수동무를 비롯한 3대혁명소조원들은 높이 세운 기술혁신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청춘의 열정과 지혜를 아낌없이 바쳐나가고있다.

그들은 당조직의 지도밑에 과학자, 기술자들과 힘을 합쳐 인발강관직장에 고온공기연소기술을 도입하고 환원철과 망간철생산공정을 확립하기 위한 사업을 비롯하여 강철생산에서 제기되는 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혁신전투에 뛰여들어 창조의 낮과 밤을 이어가고있다.

우리 당의 크나큰 믿음을 심장에 새기고 창조적지혜와 열정을 남김없이 폭발시켜가는 강선의 3대혁명전위들이 올해에 이룩하게 될 기술혁신성과들은 또 얼마나 클것인가.

본사기자 채 인 철

대고조전투장들에 더 많은 착암기를

전천착암기공장에서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깃들어있는 전천착암기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대고조전투장들에 보내줄 착암기생산에서 현일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높아진 1월 착암기생산계획을 앞당겨 완수한 기세로 2월에 들어와 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탄광, 광산을 비롯한 채취공업부문을 추켜세우자면 전천착암기공장에서 착암기를 많이 생산하여야 합니다.》

이곳 일군들은 당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단위의 영예를 높은 착암기생산성과로 빛내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종업원들을 증산투쟁, 돌격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당조직에서는 모든 생산자들이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발자취가 뜨겁게 새겨져있는 영광의 일터에서 살며 일하는 긍지와 영예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생산적앙양을 일으키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나가고있다.

일군들은 수천대의 착암기를 생산하여 정제강국건설장들마다에 보내준 지난해의 성과와 경험에 토대하여 뜻깊은 올해에 경제전선전반에서 활성화의 돌파구를 열어제끼는데 적극 이바지할 열의밑에 전투조직과 지휘를 화선식으로 벌려나가고있다.

소재보장부문과 가공부문을 비롯한 생산단위들을 하나씩 맡고 내려간 당, 행정일군들은 들끓는 현장에 전투파지를 정하고 걸린 문제들을 제때에 해결해주기 위해 기관차가 되여 내달리고있다.

제품의 질은 생산자들의 높은 책임성과 기술기능수준에 달려있다는것을 잘 알고있는 일군들은 과학기술보급실운영을 목적지향성있게 짜고들고 종업원들의 기술기능급수를 높이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켜나가고있다.

창조와 혁신의 가장 큰 예비, 기적창조의 근본열쇠는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시키는데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일군들은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는 사업에도 힘을 넣어 10여t의 강재를 자체로 보장하여 생산정상화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로동자, 기술자들은 낮과 밤이 따로 없는 돌격전을 벌리고있다.

선행공정인 소재보장부문에서 증산의 동음이 높이 울리고있다.

주물직장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종주파유도로를 비롯한 설비들의 정상가동에 힘을 넣고 합리적인 작업방법들을 받아들여 1월 한달동안에 석달분의 소재준비를 끝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단조직장의 로동계급도 표준조작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면서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지펴올려 매일 맡겨진 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자랑을 떨치였다.

부분의 생산단위들에서도 드센 공격전의 열풍이 몰아치고있다.

3가공직장의 로동자들은 작업반별, 기대별사회주의증산경쟁을 힘차게 벌리며 착암기본체가공을 다그치고있다.

다른 가공직장들에서는 기대별, 개인별전투목표를 무조건 수행하기 위한 증산돌격전이 벌어져 높은 부속품가공실적을 기록하고있다.

열처리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도 서로의 창조적지혜를 합쳐 자동온도조종장치를 생산에 받아들여 내마모성을 비롯한 착암기부속품들의 기계적성능을 적극 개선함으로써 착암기의 생산성과 질을 높이는데 한몫 단단히 하고있다.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이미 거둔 성과에 만족함이 없이 대고조전투장들에 더 많은 착암기들을 보내주기 위하여 련속공격, 계속혁신해나가고있다.

본사기자 심 학 철

사회주의 우리 조국에서만 태여날수 있는 인간사랑의 찬가

동해학원의 한 원아에게 바쳐진 따뜻한 사랑과 정에 대한 이야기

얼마전 동해학원의 하반신마비가 왔던 한 원아가 침상을 박차고 일어나 대지를 마음껏 활보하는 기적이 일어났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서로 믿고 사랑하고 도우면서 화목한 대가정을 이루고 다같이 삶의 보람과 행복을 누리는것이 우리 사회의 참모습이다.》

사회주의보건제도의 혜택속에서 사경에 처하였던 환자들이 소생하는 기적에 대하여 사람들은 너무도 메사롭게 들어왔다. 하지만 동해학원의 한 원아의 치료과정은 우리에게 또다시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다른 나라, 다른 사회에서라면 희망송에서 버림받았을 부모없는 한 소녀가 제일가는 행복동이가 되여 뭇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수많은 보건일군들의 정성속에 두번다시 태어난 이 기적이야말로 사회주의 우리 조국에서만 찾아볼수 있는 특이한 현실이다.

우리모두가 공기처럼 범상하게 느끼고있는 사회주의생활속에 얼마나 뜨거운 인간사랑의 세계가 비꺼있는가를 다시한번 심장으로 절감하게 하는 몇가지 사실들을 그대로 적는다.

※ ※

뜻밖의 병을 만나 심하게 앓고있던 안정심소녀가 지난해 4월 치료를 받기 위하여 평양으로 오게 된데는 가슴뜨거운 사연이 있었다.

지난해 3월 어느날이였다. 보건성 일군들이 많은 의약품과 의료설비들을 가지고 동해학원을 찾아왔다.

당시 인민보안성에서는 동해학원을 최한하게 다시 일떠세우는 전투를 마감단계에서 벌리고 있었는데 보건성에서 이들을 도와주려고 찾아왔던것이다.

이날 보건성 일군들은 학원에 하반신마비로 고통을 겪는 한 원아가 있으며 그의 생명이 여러가지 합병으로 하여 마지막계선에 이르렀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환자를 찾아본 이들은 선뜻 발걸음을 돌릴수가 없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그처럼 애지중지하시는 원아들속에 단 한명의 그늘진 아이라도 있으면 되겠는가.)

리광혁처장의 심정뿐이 아니였다. 동해학원에 함께 온 홍승일부국장과 박성철책임부원도 마치 한 원아의 앞날이 자기들의 어깨우에 지워져있는듯 한 무거운 마음을 안고있었다.

평양으로 돌아온 보건성 일군들은 동해학원의 한 원아의 운명을 놓고 자기 자식의 일처럼 가슴아파하면서 심중한 론의를 거듭하였다. 솔장집에서 우연히 알게 된 환자를 스스로 책임지고나선 이 소행은 사회주의보건제도를 지켜선 우리 시대 보건일군들의 사상정신세계를 보여주는 동시에 한 원아의 소생을 예고하는 희망의 첫싹으로 되였다.

이렇게 되여 중앙병원의 유능한 의사들의 검진을 받은 안정심소녀는 척추수술을 받기 위하여 보건성 하단병원으로 옮겨가게 되였다.

김두섭원장을 비롯한 병원의 료일군들이 그들을 따뜻이 맞이하였다.

《우리 정심이를 부탁합니다.》

친자식을 맡긴듯 발걸음을 떼지 못하는 보건성 일군들의 절절한 마음에 감동된 원장은 대답대신 《우리 정심이》라는 말을 곱씹어외웠다.

사실 처음 환자를 보았을 때 이곳 의료일군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척추수술에서 림상경험이 풍부한 그들이였지만 몸에 차마 수술칼을 댈수 없을 정도로 환자의 상태가 위중하였던것이다.

하지만 의료일군들은 한 어린 생명에 대한 치료과업을 조국의 명령마냥 무게있게 받아안았다. 협의회만 해도 10여차례 진행되였다. 최선의 방도는 짧은 기간에 정심이의 건강상태를 수술적응증에 이를 때까지 회복시키는것이였다.

약물치료, 수법치료, 심리치료, 과학적인 식사보장…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도 정성이 지극하여서인지 몇개월 동안 줄곧 악화되던 정심이의 건강이 호전기미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20여일이 지나서부터는 환자의 숨결도 고르로와지고 심장박동도 어느정도 안정되였다.

한편 척추외과 과장 강성민동무를 비롯한 의료일군들은 정심이에게 육체적부담을 크게 주지 않으면서도 좋은 치료성과를 거둘수 있는 수술방법에 대한 연구에 들어갔다. 수술의 목적은 하반신마비를 결정적으로 푸는것인데 여기서 생명을 담보하는 기본조건은 수술무위를 작게 하면서 수술시간을 최대로 단축하는것이였다.

드디여 병원에서는 수술을 결심하였다. 그런데 수술을 하자고 보니 수술립회인이 없었다.

수술을 앞두고 그의 병력서를 정리하던 과장의 손이 문득 멈추어졌다. 정심이는 부모가 없으니 보건성에서 수술립회를 서겠다고 하였는데 홍승일부국장과 박성철책임부원이 아직 도착하지 않은것이다.

원주필을 전제로 망설이고있는 과장의 손을 덥잡으며 김두섭원장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성일군들은 오지 말라고 내가 부탁하였소. 웬일인지 처음 수술칼을 잡을 때처럼 마음이 긴장되더구만. 정심이의 수술립회는 내가 서겠소.》

이렇게 되여 그날 수술집도자가 수술립회인을 겸하여 수술장에 들어서는 뜻밖의 현실이 펼쳐지게 되였다.

그 시각 평양에서 내려온 보건성의 일군들도 병원밖에서 한 초한초 가슴을 조이면서 수술결과를 기다렸다. 정심이에게 자기 피를 넣어주겠다고 팔을 걷어붙이고 줄을 서있던 의료일군들의 모습은 정말로 눈물겨운 광경이였다. 수술과정에 어려움이나 되는 보건일군들의 피가 생명의 젖줄기가 되여 정심이의 몸에 흘러들었다.

수술은 성과적으로 끝났으나 그날 저녁 원장과 과장을 비롯하여 수술장에 들어섰던 사람들은 수술시의 초긴장감이 좀처럼 풀리지 않아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한겨울을 이겨내고 움터난 새싹이런듯, 봄빛에 젖은 풋망울이런듯 생기를 다시 머금은 정심이의 회복은 빨랐다.

수술후 20일이 되여 발가락감각을 되찾은 안정심소녀는 한달만에 드디여 자리에서 일어나 앉을수 있게 되였다. 병원사람들모두가 자기 일처럼 기뻐하였다. 그들은 사경에 처하였던 환자가 소생하고 큰 수술이 성과적으로 진행된것이 마치 정심이의 공로나 되는듯이 두볼을 다정하게 쓸어주고 어깨를 두드려주며 정말 용하고 속하해주었다.

사실 정심이가 소생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뜨거운 정성을 바쳤던가.

정심이의 몸상태를 개선하기 위하여 매일이다싶이 밤을 밝히면서 누구보다 마음을 많이 써왔고 명절이면 마치 친손녀가 입원한듯 온 가족을 데리고 호실에 찾아와 그의 마음을 즐겁게 하여주던 인정많은 김두섭원장,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는것이 미안하다고 하면서 음식을 잘 들지 않고 속태우는 정심이에게 친어머니처럼 따뜻한 정을 끝없이 부어주며 정성껏 보살펴준 동해학원 간호원 림옥경동무, 정심이를 제살붙이처럼 꼭 붙안고 치료 전과정에 티없이 깨끗한 량심을 바쳐온 담당의사와 담당간호원이며 어쩌다 맛좋은것이 생겨도 저마다 정심이를 생각하여 가져오고 그가 적적해할세라 늘 관심해주고 세심히 보살펴준 온 병원의 의료일군들과 종업원들, 귀한 약재들을 마련해가지고 때없이 찾아와 정심이를 기쁘게 하여주고 신심을 가지도록 고무해준 보건성의 일군들…

하지만 안정심소녀에게는 이것이 치료의 전부가 아니였다.

리광혁처장을 비롯한 보건성 일군들은 안정심소녀가 자기 발로 대지를 활보할 때까지 치료를 꾸준히 밀고나가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지난해 6월 안정심소녀는 평양의 어느 한 중앙병원으로 옮겨오게 되였다. 그의 곁에는 회복치료를 위해 온갖 성의를 다하는 새로운 담당의사, 담당간호원들이 있었다. 보건성의 일군들, 병원의 입원환자들이 정심이, 정심이 하면서 그를 조금이라도 더 기쁘게 해주려고 원심을 썼다. 낯모를 인민보안원들도 그를 찾아와 따뜻이 돌봐주었다.

몇달간의 치료끝에 안정심소녀가 자기의 두발로 땅을 디디고설수 있게 되였을 때부터는 분수기능회복원에서 정심이의 운동회복치료를 맡아나섰다.

어느날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병원의 변경호실장이 정심이를 찾아와 《이 병원에선 오순철담당의사선생님이 너를 책임졌지만 분수기능회복원으로 다닐 때에는 내가 너를 책임졌단다.》라고 하면서 자기 소개를 하였다.

다음날부터 그는 매일과 같이 정심이를 손녀처럼 꼭 껴안고 분수기능회복원에 함께 다녔다.

그러던 어느날 인민보안원 박충일동무가 또 정심이를 찾아왔다. 동해학원의 한 원아가 평양에 와서 몇달째 치료받고있다는 이야기를 우연히 들은 그는 자신이 솔선 정심이를 분수기능회복원으로 데려고다니는 일을 딴 아니선것이다. 하여 의사와 보안원이 늘 같이 다니며 어린 정심이의 기능회복치료를 도와주는 흔치 않은 모습이 펼쳐지게 되였다.

고마운 이 인민보안원은 매일 아침식사를 준비하여 정심이를 찾아오고 일요일이면 안해와 함께 맛있는 음식을 가져다가 정심이를 기쁘게 하여주었으며 쌍지팽이도 만들어주고 몸에 꼭 맞는 옷도, 포근한 이불도, 제미나는 그림책도 안겨주었다.

한손으로 벽을 짚고 걸음을 뗄수 있게 되자 정심이는 또다시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병원으로 옮겨 입원하게 되였다.

여기서 회복치료를 받은 한달남짓한 기간의 이야기에 대하여 우리는 정심이와 그보배 아이들이 자기의 책에 또박또박 쓴 몇줄의 글로 대신하려고 한다.

《오늘은 일요일이다.

저녁식사가 끝날무렵 큰아버지, 할아버지가 왔다. 나는 정말 기뻤다.…

우리 호실의 할머니, 어머니들과 동무들은 이런 나를 보고 부러움을 금치 못해하였다. 나는 자랑스럽다.

나는 치료를 다 마치고 학원에 가면 모든 과목에서 단연 첫자리를 차지하며 꼭 미술소조에 들어가겠다. 그래서 온 한해동안 나에게 사랑을 기울여준 고마운 사람들의 모습을 화폭에 담겠다.…》

《내가 아침에 치료를 받고 호실에 들어오니 낯모를 사람들이 많았다. 그 사람들은 정심언니의 면회를 왔던것이다. 나는 사람들이 바람이 생생 부는 날에 왜 면회를 왔을가 하고 생각하였다. 나는 그것이 원수님 사랑이라는것을 느꼈다.…》

《내가 있는 호실에는 어렸을 때 부모를 다 잃은 정심이라는 동무가 있다.…나는 처음 나와 나이도 꼭같은 저 동무가 부모도 없이 얼마나 쓸쓸해할가 하는 생각에 솔직히 동정까지 갔었다.

하지만 매일매일 언제나 엄마같은 간호원아지미가 그를 돌봐주고있었다. 그리고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과 길가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들이 그의 병문안을 오고있다. 병원선생님들도 모두가 다 정심동무의 병을 하루빨리 완쾌시키기 위해 온갖 정성을 기울이고있다.

정말 친부모도 줄수 없는 혈육의 정이 정심동무에게 미쳐지고 있다. 이런 전설같은 이야기는 사회주의조국에서만이 꽃펴날수 있다.…》

동해학원에서는 정심이가 그새 못한 공부를 보충하라고 리정임교원을 올려보냈다.

그는 정심이에게 학원동무들의 편지도 전해주었다.

다정한 동무들은 다매체편집물을 보면서 공부도 하는 현대적인 교실, 체육 및 오락을 마음껏 할수 있는 체육관, 드넓은 축구장, 따뜻한 잠자리가 기다리는 기숙사 등 새로 일떠선 학원자랑으로 편지를 꽉 채우며 모두들 정심이가 어서 오기를 손꼽아 기다린다고 하였다.

정심이에게는 어디서나 사랑과 정이 넘쳐흐르는 행복의 보금자리, 따뜻한 집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듯 뭇사람들의 진정어린 관심과 보살핌속에 안정심소녀는 그렇게도 다시 밟고싶던 이 땅을 마음껏 밟을수 있게 되였다.

※ ※

주체106(2017)년 12월 8일 안정심소녀가 자기 발로 걸어서 다시 동해학원구내에 들어설 때까지 240여일의 입원치료를 받은 병원은 4개, 직접 치료에 참가한 의료일군들은 10여명, 치료를 조직해주고 친혈육처럼 생활을 보살펴준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무려 수백명…

이 몇개의 수자를 놓고 우리는 안정심소녀가 다시 소생하여 대지를 활보할수 있게 된 기적의 비결에 대하여 충분한 대답을 찾게 된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어버이로 높이 모신 사회주의대가정에 흘러넘치는 따뜻한 사랑과 정, 이것이야말로 개별적인 의사의 실력이나 값비싼 약에 비할바없는 오직 우리의 사회주의에만 있는 명치방이고 명약이다.

돈밖에 모르는 자본주의사회같으면 있을수도 없고 흉내낼수도 없는 이런 아름다운 인간사랑의 찬가는 앞으로도 끝없이 이어질것이며 그로 하여 우리 조국은 더욱 단결되고 강대한 모습으로 온 세상에 빛날것이다.

본사기자 김 옥 별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외국손님들 경의 표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11일까말 쁘라싸드 차율라가인 중앙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네팔련합민족사회주의당대표단을 비롯한 외국손님들이 경의를 표시하였다.

손님들은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로 나라의 통성번영과 인류자주위업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마음을 안고 절세위인들의 림상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들에서 그들은 수령님들께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손님들은 훈장보존실들과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현지지도와 외국방문의 길에서 리용하신 승용차와 전동차, 배, 렬차 보존실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네팔련합민족사회주의당대표단 단장은 방문록에 김일성주석께와 김정일령도자께 충심으로 되는 경의를 표한다, 김일성주석께서와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자주, 자립, 자위의 강국으로 강화발전시키는데 커다란 업적을 이룩하시였다고 썼다.

【조선중앙통신】

사색도 실천도 오직 하나

평양철길대 평양2철길소대에서

나라의 동맥인 두줄기 철길과 로반을 지켜 헌신의 구슬땀과 열정을 바쳐가고있는 사람들속에는 평양철길대 평양2철길소대원들도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주체조선의 건국과 발전행로에 빛나는 영웅적투쟁과 집단적혁신의 전통을 이어 혁명의 최후승리를 이룩할 때까지 계속혁신, 계속전진해나가야 합니다.》

철길원이 철길을 보수, 관리하는 사람이라는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철길원들이 조국의 방방곡곡으로 끝없이 뻗어간 두줄기 궤도의 한구간한구간을 명점철길로 만들기 위해 바쳐가고있는 순결한 량심과 성실한 땀방울에 대해 아는 사람은 아마 많지 못할것이다.

몇해전 여름 어느날이였다.

평양철길대 평양2철길소대원들이 철길작업을 끝내였을 때는 한여름의 긴 해가 서산으로 기울고있었다.

삼복의 피약볕속에서 종일 삽질, 곡괭이질을 하며 중량물운반작업을 진행한 소대원들은 어지간히 지쳐있었다.

그때 반자동궤간자로 철길의 수평상태를 깐깐히 재여보던 소대장 김추영동무는 한쪽레루의 높이가 정상수치에 이르지 못한것을 발견하였다.

물론 그것이 허용한계를 벗어난것은 아니였다.

그러나 김추영동무의 마음은 무거웠다.

(우리의 목표는 명점철길소대가 되는것이 아닌가. 힘들어도 바로잡자.)

이렇게 되여 김추영동무와 소대원들은 또다시 미흡한 점을 퇴치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게 되였다. 그날 그들이 편차를 완전히 정상으로 만들었을 때에는 깊은 밤이였다.

철길에 깨끗한 량심을 바쳐가는 이런 이야기를 하자면 끝이 없다.

남들이 다 자는 이른새벽 철길을 순회하다가 고착물이 풀린것을 발견하고 제때에 대책을 세운 최성호동무, 하루일을 마치면 철길주변을 돌아보며 불량개소들이 없는가를 확인하고서야 마음을 놓는 정을철동무, 철길강도를 높이기 위해 늘 머리를 쓰고 사색을 거듭하는 안정철, 림경수동무들…

이렇듯 평양2철길소대원들의 사색과 실천은 오직 철길강도를 높이기 위한데로 지향되였다.

그 나날 소대는 명점철길소대의 영예를 지니게 되였고 소대원들은 한마음한뜻으로 더욱 굳게 뭉치였다.

지난 1월 어느날 밤이였다.

오래간만에 집에 돌어갔던 김추영동무는 갑자기 많은 눈이 내린다는 일기예보를 듣고 일터로 나오고있었다.

그러던 그는 문득 발걸음을 멈추었다. 소대원들이 모두 작업준비를 갖추고 담당구간을 차지하고있었던것이다.

그들을 보는 소대장 김추영동무의 마음은 불을 안은듯 뜨거워올랐다.

《고맙소. 동무들, 이 밤중에…다 나왔구만…》

《기적소리를 들어야 마음이 편안해지는것이 우리 철길원들이 아닙니까.》

그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였다.

한여름의 불볕아래서 그리고 한겨울의 강추위속에서 늘 육중한 레루를 다루고 침목을 바꾸고 자갈을 다지며 낮에 이어 밤에도 묵묵히 순회의 길을 걷다가도 기적소리를 들으면 더없는 행복의 미소를 짓는 사람들, 그 누가 알아주건말건 두줄기 궤도에 티없이 맑은 량심을 바쳐가는 뜨겁고 진실한 마음을 지닌 참된 사람들이였다.

바로 이런 미더운 철길원들의 열정과 헌신이 있어 두줄기 궤도우를 달리는 기관차의 기적소리 그토록 기세차고 일터마다에서 기적과 혁신의 동음 높은것이다.

김 국 철

사상과 신념의 강자들로

상농광산에서

상농광산 당조직에서 일군들과 종업원들을 사상과 신념의 강자들로 철저히 준비시키기 위한 신념교양을 실속있게 진행하고있다.

이를 위해 광산안의 모든 당세포와 근로단체조직들에서 주별, 월별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일군들과 종업원들에 대한 신념교양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고있다.

일군들은 선전원, 선동원이 되여 대중속에 들어가 종업원들에게 혁명의 년대기마다 당과 수령만을 굳게 믿고 걸사용위해온 전세대들이 지니였던 불굴의 혁명신념과 투쟁기풍을 깊이 체득시키고있다.

이곳 당조직에서는 당보를 비롯한 여러가지 출판물을 통한 사상교양사업에 큰 힘을 넣으면서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에 대한 독보와 해설, 연구발표모임과 노래보급 등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신념교양을 참신하게 진행하고있다.

그리하여 모든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제시기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고부동한 신념을 안고 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에 더욱 힘있게 떨쳐나서고있다.

로농통신원 리 상 두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하는 헌신적인 일본새

신의주시에서

우리 당의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신의주시의 일군들이 인민들의 생활조건개선을 위한 건설을 적극 내밀어 국경관문도시의 면모를 일신시키고 주민들에게 더 좋은 생활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주고있다.

시에서는 지난해에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시내의 10여개 로선의 17만 5천㎡에 대한 아스팔트포장공사를 진행하면서도 규모가 방대한 체하도로와 신로도로들에 대한 콩크리트포장공사를 진행하여 도로의 면모를 훌륭히 일신시키였다.

뿐만아니라 여러개의 뻐스로선들을 새로 내오고 상수도공사를 진행하여 수질이 좋은 먹는물을 충분히 보장해주었으며 다층살림집개건공사와 건설을 진행하여 주민들에게 훌륭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었다.

이런 성과는 이곳 일군들이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할데 대한 당의 뜻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대담하게 작전하고 통이 크게 일판을 벌려나간것과 적지 않게 관련되여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인민들의 요구와 리익을 사업의 절대적기준으로 삼고 오직 인민들이 바라고 좋아하는 일을 하여야 하며 무슨 일을 하든 인민들이 덕을 보게 하여야 합니다.》

지난해 6월 어느날이였다.

시당위원회 책임일군의 방에서는 협의회가 진행되였다.

토의안건은 1 300여m의 장의 면모를 일신시키는 사업과 신의주경기장개건공사, 시안의 10여개 로선에 대한 아스팔트포장공사를 비롯한 여러 대상공사가 동시에 벌어지고있었다.

이런 조건에서 규모가 방대한 체하도로와 신로도로콩크리트포장공사에 필요한 많은 량의 세멘트와 흙석을 보장하면서 로력예비를 찾아낸다는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였다.

방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장내를 둘러보며 리제남시당위원장은 이렇게 말하였다.

《신의주시를 잘 꾸리는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과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 일군들이 수령의 유훈과 당정책을 결사관철하겠다는 사상적각오를 가지고 분발한다면 자재와 로력문제는 얼마든지 풀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말은 비록 길지 않았지만 일군들의 심금을 울려주었다.

시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전개동무를 비롯한 책임일군들은 예비를 탐구동원하기 위해 신발창이 닳도록 뛰였다. 일군들은 세멘트, 흙석을 비롯한 자재를 해결하면서 도로포장공사를 힘있게 밀고나갔다.

체하동과 신로동을 비롯한 시안의 주민들도 도로포장공사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시안의 녀맹예술선동대원들도 도로포장공사장들에 달려나가 전투적이며 혁명적인 노래로성으로 대중의 정신력을 힘있게 분출시켰다.

그리하여 시에서는 도적인 사업으로 진행되는 10여개의 중요로선에 대한 아스팔트포장공사를 결속하면서도 짧은 기간에 체하도로콩크리트포장공사와 신로도로콩크리트포장공사를 끝내고 이 일대의 면모를 일신시키였다.

일군들의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의 헌신적인 일본새는 지난해와 올해에 여러개의 새 뻐스로선들을 내오고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인민들의 교통상편의를 보장해주고있는 사실을 놓고서도 잘 알수 있다.

시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시려객자동차사업소의 일군들은 신의주시의 교통문제를 푸는것을 단순한 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인민들의 생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문제로 여기고 려객봉사활동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통이 크게 벌려나갔다.

윤경언, 최용남, 안용수동무를 비롯한 시려객자동차사업소의 일군들은 혁신적인 경영전략, 기업전략을 세우고 새 뻐스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 지난해에 20여대의 뻐스를 마련하였다.

이런 성과에 기초하여 사업소에서는 주민들이 집중되여있는 신포동지구를 떠나서 천선지구까지 다니는 새로운 시내뻐스로선을 내오고 운행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1일부터는 수문동지구를 떠나서 압강동지구를 거쳐 체하동지구까지 다니는 시내뻐스로선을 새로 내오고 운행을 시작하였다.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이곳 시려객자동차사업소의 일군들은 신남동지구를 떠나서 동하동지구까지 다니는 새 뻐스로선을 내올것을 발기하고 뻐스정류소들을 확정하였으며 올해 1월 1일부터 신남-동하뻐스로선에서 첫 운행을 시작하였다.

뿐만아니라 시려객자동차사업소에서는 시내로선의 일부 구간에서 무궤도전차운행을 정상화하여 주민들의 교통상편의를 충분히 보장해주고있다.

여러개의 새 뻐스로선들이 생겨난데 맞게 시려객자동차사업소의 일군들은 려객사령지휘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뻐스들에 대한 수리정비를 짜고들면서 주민들의 교통상편의를 최우선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고있다.

시의 책임일군들은 새로 생겨난 로선들에서 첫 운행을 시작할 때마다 뻐스를 타고 주민들과 함께 여러 구간들을 돌아보면서 시려객자동차사업소의 일군들과 운전사, 차장들이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을 지니고 려객봉사활동을 잘해나가도록 적극 고무해주었다.

시의 일군들이 다층살림집건설과 개건공사를 내밀어 거리의 면모를 일신시키고 인민들에게 더 좋은 생활조건을 마련해주고있는 사실, 시검찰소의 일군들이 주민들의 부족되는 먹는물문제를 풀기 위해 규모가 방대한 여러개의 양수장을 새로 건설하여 력을 보게 한 사실을 비롯하여 인민들의 생활조건개선을 위해 아글타글 노력하고있는 사실들을 다 적자면 끝이 없다.

실천적경험은 일군들이 수령의 유훈과 당정책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정신을 높이 발휘하면서 대담한 공격전을 벌려나갈 때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조건에서도 인민들에게 훌륭한 생활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줄수 있다는것을 웅변으로 보여주고있다.

특파기자 송 창 윤

경제선동활발

개성시에서

개성시안의 공장, 기업소, 협동법들에서 경제선동의 북소리가 힘차게 울리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크나큰 흥분속에 받아안은 시안의 일군들은 새해의 총진군길에 떨쳐나선 대중의 열의를 비상히 앙양시키기 위한 경제선동사업을 박력있게 조직전개해나가고있다.

들끓는 현장들에 달려나간 시안의 작가, 예술인들과 기동예술선동대원들은 다양한 경제선동활동으로 전투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키고있다.

개성시예술단 예술인들은 개성송악산피복공장, 개성자동차사업소 등 공장, 기업소들에서 선동시와 노래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녀성중창 《사회주의전진가》, 남성중창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를 비롯한 종목들로 수십회의 경제선동활동을 기동적으로 벌려 이곳 로동계급을 새로운 기적과 혁신창조에로 고무추동하였다.

개성시예술선전대원들은 농사차비로 들끓는 개성시 덕암, 선적, 평화협동농장에서 농장원들의 일손을 도와주면서 쉼참이면 시이야기 《나라의 쌀독》, 흥성2중창 《분조농사 꽃이 피네》 등 다채로운 종목들을 펼쳐 대중의 혁명열, 애국열을 더해주었다.

시안의 녀맹예술선동대원들과 공장, 기업소 등의 기동예술선동대원들도 이른아침부터 힘있는 위주악과 출근길환영, 혁신자축하공연으로 종업원들의 사기를 높여주었다.

시안의 작가들은 시 《새승리의 진군길》, 《전세대들이 지켜본다》, 《활성화의 돌파구를 열자》를 비롯한 작품들을 창작발표하여 대중의 심장마다에 새로운 비약의 불을 달아주었으며 고려성균관, 송도사범대학 등의 대학생들도 방학기간 전투적인 경제선동활동으로 일터마다에 혁신의 기상이 나래치게 하였다.

활발히 벌어지는 화선식경제선동은 풍화국창건 일흔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를 자랑찬 로력적성과로 빛내이기 위한 시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힘찬 진군에 커다란 활력을 부어주고있다.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을 안고 충정의 마음 바쳐가고있는 만경대구역 팔골소학교 교원, 학생들 —백두산밀영혁명전적지관리소에서— 본사기자 리진명 촬영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원산시 상자리 인민병원에서

당의 보건정책을 높이 받들고 의료봉사활동을 활발히 벌려나가고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병원의 책임일군들은 모든 의료일군들이 정성은 사회주의보건의 속성이며 생명이라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교시를 치료예방사업에 철저히 구현하도록 하고있다.

일군들은 호담당의사들의 역할을 높이는데 힘을 넣고있다.

호담당의사들은 담당지역들에 나가 주민들의 건강상태를 빠짐없이 장악하고 구급환자가 생기면 제때에 치료할수 있게 의약품과 의료기구들을 충분히 갖추어놓고있다. 그리고 계절에 따르는 위생상식도 제때에 알려주어 주민들이 병을 미리 예방하는 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하고있다.

병원에서는 해마다 많은 약초를 심고있으며 여러가지 고려약을 만들어 환자치료에 적극 리용하고있다.

오늘도 이곳 의료일군들은 리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길에 뜨거운 정성을 바쳐가고있다.

로농통신원 문 춘 옥

당의 교육중시사상이 반영된 세상에 자랑할만 한 본보기대학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지도를 받은 평양교원대학에서

주체교육의 창창한 미래를 펼쳐주신 위대한 스승

지난 1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지지도를 받은 평양교원대학이 붉도가니마냥 끓어번지고있다.

그이의 현지지도소식과 더불어 전체 교육자들의 가슴속에 올해를 또다시 과학교육의 해로 정해주시고 하늘같은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감사의 정이 차넘치고있다.

우리의 주체교육이 만리마속도로 비약할수 있도록 본보기를 창조해주시고 현명한 령도로 걸음걸음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온 나라의 교육기관들이 또다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창조와 비약의 나래를 한껏 펼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나라의 문명은 교육수준에 의하여 달보되며 우리 국가의 미래는 교육사업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데 달려있습니다.》

풍화극장건 일흔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의 1월 16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대소한의 추위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대학을 찾아주실줄은 그 누구도 몰랐다.

우리 원수님께서 새해 정초부터 찾으셔야 할 곳, 만나보셔야 할 사람들이 그 얼마나 많고많으시였으랴.

하지만 국가과학원에 이어 평양교원대학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후대관, 미래관앞에 온 나라가 해솟는 바다처럼 설레이였다.

과학과 교육을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대사로 변함없이 내세우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확고부동한 의지와 웅심깊은 혁명세계를 마음속으로 새기며 우리 인민은 내 조국의 창창한 미래를 가슴뜨겁게 그려보았다.

뜻깊은 그날 이곳 일군들은 자기 대학을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본보기대학으로 일떠세워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올리였다.

주체57(1968)년 9월에 창립되여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와 세심한 지도속에 자랑스러운 발전행로를 걸어온 평양교원대학이였다.

바로 이 대학을 훌륭히 꾸릴 구상을 하신분은 우리 원수님이시였다. 지난해 2월 평양교원대학을 교육의 과학화, 정보화, 현대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본보기대학으로 잘 꾸리고 전국에 일반화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던것이다.

그이께서 평양교원대학을 본보기대학으로 꾸릴 결심을 하신데는 깊은 의도가 있었다.

사람의 지적두뇌가 발전하는 중요한 단계인 어린시절에 어떻게 교육을 어떻게 받는가에 따라 헌신을 보고 대하는 관점과 립장이 달라지며 공고해진다. 뿌리가 든든한 나무에서 충실한 열매가 달리는것과 마찬가지로 학령전어린이교육과 소학교교육을 새로운 과학적토대우에 올려세워야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새 세대 혁명인재로 튼튼히 키워낼수 있었다.

이처럼 새 세기 교육혁명을 일으켜 우리 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재강국으로 빛내이는데서 교원대학들의 임무와 중요성을 깊이 통찰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였기에 평양교원대학개건사업에 그렇듯 각별한 관심을 돌리시고 많은 품을 넣으신것이였다.

대학을 찾으신 뜻깊은 그날 연혁소개실에 들리시여 전시된 자료들을 보아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대학일군들과 교직원들은 대학에 깃들어있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숭고한 뜻과 자기들이 맡고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교수교양사업에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나감으로써 수령님과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여나가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날 대학사업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평양교원대학이 지난 기간 위대성교양을 위주로 하는 5대교양사업에 리용할 프로그람들과 전자교양자료들, 교육지원프로그람들을 개발하고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강령을 집행하기 위한 수많은 교재들을 집필하였으며 학생들의 자립적사고활동에 기본을 두고 과학적으로 강의를 할수 있게 교육예측기술을 도입한것을 비롯하여 과학연구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고 높은 평가를 안겨주시였다.

그러시고 자식들의 자그마한 성과도 대견하게 여기며 기뻐하는 친부모의 심정그대로 이르시는 곳마다에서 이들이 거둔 성과를 적극 내세워주시였다.

모든 교육행정사업이 학생들의 학습열의와 학과실력을 높이는데 지향되고있는것을 료해하시고는 착상이 좋다고 평가해주시였고 가상교수정황에서와 실지교수정황에서 수업을 해보는 교수방법을 보시고는 새롭고 특색있다고 치하해주시였다. 학생들이 교원의 기존에 도달하였는가를 평가하는 방법, 학교교육과 가정교육을 결합시키기 위해 꾸린 교실에서 진행하는 여러가지 교수방법도 우월한 교육방법이라고 하시며 만족해하시였다.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교원, 학생들을 위한 훌륭한 교육조건과 환경이 마련된것이 너무도 기쁘시여 오랜 시간 이곳을 뜨지 못하시였다.

다기능홀로 희한하게 꾸려진 체육관을 찾으시여서도, 과학기술전당의 축소판처럼 꾸려진 멋진 도서관을 돌아보시면서도, 대학에 그윽하게 갖추어진 첨단교육설비들과 현대적인 교구비품, 관리운영설비들을 바라보시면서도 기분이 좋다고, 대단히 기쁘다고 하시며 환하게 웃으시였다.

우리의 미래를 담당한 교육자들에게 저 하늘의 별이라도 따준것 같고 금방석을 마련해준것 같은 심정이라고, 조국의 창창한 미래가 눈앞에 선히 그려진다고 격정에 넘쳐 말씀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

그이의 모습을 우러르며 동행한 일군들은 모두가 눈시울을 뜨겁게 적시였다. 당의 교육중시사상이 반영되고 당의 사랑이 해빛처럼 넘쳐흐르는 교정이 얼마나 마음에 드셨으면 그처럼 기뻐하시랴 하는 생각이 격정의 물목을 터쳐놓았던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현지에서 교육사업을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강령적인 가르치심도 주시였다. 학생들이 자연과 사회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체득하고 지적능력과 응용능력, 자립성을 높일수 있도록 교육과정안을 개선완성하는 문제, 실험실습의 비중을 높이고 교육사업을 학생들의 창조적능력을 높이는데로 확고히 지향시킬데 대한 문제, 실력평가방법, 시험방법을 개선하고 학생들의 실력을 공정하게 평가하여 그들의 학습열의를 적극 높여나가도록 할데 대한 문제 등 교육사업발전의 귀중한 지침을 받아안은 일군들의 가슴가슴은 끝없는 영광으로 설레이였다.

어찌 그뿐이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오신 날을 손꼽아 기다려온 대학일군들과 교직원, 학생들의 간절한 소원을 깊이 헤아리시여 대를 두고 길이 전할 영광의 기념사진도 함께 찍으신 경애하는 원수님,

위대한 스승, 자애로운 어버이를 우러러 터치는 만세의 환호성이 1월의 하늘가로 끝없이 메아리쳐갔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마음속에 안고계시는 평양교원대학의 교육자들답게 새 세기 교육혁명수행에서 언제나 결사관철의 기수가 되리라!

이런 신념의 맹세로 지금 영광의 교정이 뜨겁게 달아있다.

그렇다. 평양교원대학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길이 전해가며 당이 바라는 교원혁명가들의 대부대를 훌륭히 키워냄으로써 조국의 미래를 더욱더 아름답게 가꾸어갈것이다.

본사기자 김명훈

후대들을 위한 헌신의 길에서

뜻깊은 강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대학을 현지지도하시면서 교원은 수업을 받는 학생들의 년령심리적특성에 맞게 말을 골라할줄 알아야 하며 웅변능력, 발표능력이 높아야 한다는데 대하여 중요하게 강조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교원대학에서 학생들의 웅변능력, 발표능력을 높여주기 위한 교육을 잘하여야 한다고 의미깊게 말씀하시였다.

대학일군들의 가슴은 세차게 설레이였다.

학생들이 대학졸업후 교단에 서서 아이들의 년령심리적특성에 맞게 수업을 할수 있도록 웅변능력, 발표능력을 비롯한 교육자적자질을 키워주는데 보다 큰 힘을 넣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가슴을 쳤다.

대학일군들의 마음속을 헤아려보신듯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아이들에게 하나를 배워주어도 알기 쉽고 재미나게 원리적으로 배워주며 그들의 지능을 빨리 계발시키는데 도움이 되도록 배워주어야 한다고, 교원들이 아이들의 년령심리적특성에 맞는 교수방법으로 수업을 하도록 하는데 교육사업의 화력을 집중하여야 한다고 세심히 가르쳐주시였다.

그날 교육사업에 첨단과학기술을 도입할데 대한 문제와 대학에서 실천실기교육을 많이 할데 대한 문제 그리고 아이들을 외국어에 능통한 인재들로 키울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그이의 귀중한 가르치심을 가슴에 새겨안는 일군들은 눈앞이 확 트이는것만 같았다.

이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는 모든 교원들을 어느 무모나 자기 자식을 마음놓고 맡길수 있는 능력있는 교원들로 준비시켜야 한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새 세기 교육혁명의 불길을 지펴주시고 나라의 교육사업을 하루빨리 발전시키기 위하여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바쳐가고계시는 절세위인의 숭고한 뜻은 그 얼마나 심원한것인가.

1월 16일, 진정 그날은 교육자들이 위대한 스승으로부터 한생 지침으로 삼아야 할 뜻깊은 강의를 받은 력사의 날이였다.

그 사랑 한없이 따사로와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대학의 이르시는 곳마다에서 친어버이의 뜨거운 사랑을 기울여주시였다.

훌륭하게 꾸려진 체육관을 돌아보시면서는 경기홀을 롱구, 배구, 탁구를 비롯한 여러가지 체육경기는 물론 정치, 문화행사도 할수 있게 다기능홀로 꾸린것이 마음에 든다고, 경기홀의 온도도 이만하면 댄츰다고 하시며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실내수영장에 이르시여서는 이렇게 멋있는 수영장에서 학생들이 수영을 하는것을 보니 기분이 좋다고, 대학기간에 수영까지 배우면 학생들이 앞으로 유치원, 소학교들에 배치되여가서 아이들에게 수영하는 방법도 배워줄수 있을것이라고 하시면서 태양같이 환한 미소를 지으시였다.

그처럼 귀하신 혁명시간을 바쳐가시며 대학의 곳곳을 오래도록 돌아보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모습을 우러르며 일군들의 가슴은 붉덩이를 안은듯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날 하늘같은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고 떠나시였건만 며칠후 대학교직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은정어린 선물을 꿈만 같이 받아안게 되였다.

이들은 격정의 눈물로 두 볼을 적시며 보답의 맹세를 다지고 또 다졌다.

경애하는 원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한생토록 후대들을 위해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나가는 당의 참된 교육전사가 되겠습니다!

1월의 강산에 끝없이 메아리쳐가는 이들의 뜨라는 맹세속에 사회주의 내 나라의 교육자된 긍지와 자부심이 한껏 어려어있었다.

본사기자

크나큰 믿음 거세찬 불길이 되여

영광의 그날을 못 잊어하는 대학의 일군들과 교직원, 학생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에 보답해갈 일념으로 세차게 끓어번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교육사업을 발전시켜 우리 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재의 나라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돌이켜보면 새 세기 교육혁명의 불길속에서 평양교원대학은 만리마속도로 비약하며 참으로 벅찬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지난 기간 위대성교양을 위주로 하는 5대교양사업에 리용할 프로그람들과 교육지원프로그람들을 개발하고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강령에 따르는 교과서와 참고서집필, 수십개 과목들을 개척하기 위한 사업에서 거둔 놀라운 성과들이 다 보여주고있다.

산골마을학교, 분교에서의 복식교수방법을 창조하고 부속소학교, 부속유치원에 대한 실시간교수참관 및 해보기수업을 통한 정황교육방법을 창조한것을 비롯하여 새로운 교수방법창조와 도입에서 이룩한 성과들도 많다.

이 모든 성과들은 어떻게 이룩된것인가.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교육사업에서도 만리마속도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온 나날속에 안아온것이였다.

교육혁명도 남이 한것을 답습하며 뒤따라가는 방법이 아니라 단번에 뛰여넘자.

이런 각오를 안고 모두가 교수교양사업에 지혜와 열정을 바쳐감으로써 대학은 오늘 교육의 과학화, 정보화, 현대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본보기대학으로 강화발전되였다.

대학에서는 학생들을 한등급 높은 단계의 교육사업을 담당수행할수 있는 교양원, 교원들로 준비시키는것을 교원대학이 내세우고 투쟁해야 할 목표로 정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르치심을 심장에 새기고 모두가 올해의 전투에서 위훈을 떨칠 비상한 결의로 심장을 불태우고있다.

실천실기교육의 비중을 높이며 모의수업과 실지수업과의 차이를 최대한 줄일수 있도록 가상교수체험체계를 더 완성하기 위한 사업, 아이들의 년령심리적특성에 맞는 교수방법을 수업에 적용하는 사업 등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밝혀주신 강령적인 과업들은 후대교육의 원종장인 대학의 강화발전을 위한 길에 불멸의 지침으로 빛나고있다.

뿌리가 든든해야 충실한 열매가 달릴수 있는것처럼 교원들은 충실한 열매가 달리게 하는 든든한 뿌리가 되여야 한다고 하신 그날의 고귀한 가르치심을 새기고 교육자들모두가 자질향상을 위한 목표를 더 높이 세우고 여기에 계속 박차를 가하고있다.

현대교육과학과 교육기술이 도입된 우리 식의 교육방법을 더욱 완성하고 구현해나가는것을 비롯하여 교육내용과 방법을 혁신하고 교육조건과 환경개선사업을 더욱 근기있게 밀고나감으로써 전국의 앞장에서 달릴 대학일군들과 교직원들의 기세는 충천하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교육에서 세계를 앞서나가려는 신심과 의지가 온 교정에 뜨겁게 떡박치고있다.

본사기자 공로혁

조국의 밝은 앞날이 보인다

희한하게 면모된 평양교원대학구내에 들어선 우리는 선뜻 발걸음을 떼수 없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은정속에 일떠선 훌륭한 교사들과 인공잔디를 입힌 시원한 운동장이 뜨겁게 안겨와서였다.

보고 또 보아도 가슴에 일어번지는 격정은 잦을줄 몰랐다.

후대교육의 원종장인 대학이 우리에게 보여준 전변의 모습은 참으로 많은것을 새겨주고있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교육조건과 환경을 일신시켜 교육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세계적수준에 올려세워야 합니다.》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본보기대학으로 훌륭히 일떠선 평양교원대학은 명실공히 당의 교육중시사상이 안아온 고귀한 창조물이다.

절세위인의 발자취를 따라 대학을 돌아보는 우리에게는 보고 듣는 모든것이 새로왔다.

건축미학적으로도 손색없는 대학의 내외부도 감탄을 불러일으키지만 교육의 과학화, 정보화, 현대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대학의 모습은 또 얼마나 놀라움을 자아내는것인가.

오늘날 과학기술을 떠나 교육사업의 성과를 기대할수 없다.

대학에는 첨단과학기술을 도입하여 교육의 질을 높은 수준에로 끌어올릴수 있는 튼튼한 토대가 마련되였다.

한마디로 대학에서 첨단교육설비들을 가지고 우리의 실정에 맞는 현대교육기술을 창조도입한것은 교육분야에서의 비약적발전을 보여주는 귀중한 성과이다.

우리 식으로 만들어 도입하고있는 교육과학행정관리체계를 놓고보자. 이 체계를 리용하여 대학의 교육과 과학사업전반을 지휘조종하고 모든 교육행정사업을 학생들의 학습열의와 학과실력을 높이는데로 지향시켜나가고있는것은 대학관리운영사업의 정보화, 과학화가 교육사업에서 가지는 의의를 더욱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모든 교실들이 실천실기를 위주로 하는 교육을 진행할수 있게 다기능교실로 꾸려짐으로써 지식경제시대, 현대교육발전추세에 맞게 교육사업을 더 높은 단계에로 끌어올릴수 있게 되였다.

소학교교수방법실기실들만 보아도 여기에서 가상정황과 실지정황속에서 소학교학생들의 심리를 체험하며 이들의 심리를 조종하는 정황처리기술을 터득하게 하는 등 여러가지 실천실기능력을 키워주게 되여있다.

소학교교실, 유치원교실, 교육평가실, 어머니교실, 가상교실로 되여있는 어린이지능계발기술보급실도 교육학적인 요구에 맞게 꾸려져 흥미를 자아낸다.

실례로 교육평가실에서는 학생학업성적평가와 교원교수평가방법을 배워주게 되여있다.

또한 만화영화나 률동영화, 유희, 놀이를 통하여 어린이들의 지능을 평가하는 방법, 3차원화상입력장치를 리용하여 어린이능력을 평가하는 방법도 창조도입되였다.

이뿐만이 아니다. 학생들이 학교교육과 가정교육을 결합시키는 방법을 터득하게 하는 어머니교실, 학생들이 CNC조각기로 여러가지 교편물을 자체로 만들어보면서 교편물제작방법을 배우게 되는 교편물제작실습실 등을 보아도 앞날의 교육자들을 높은 자질과 훌륭한 풍모를 갖춘 인재들로 키울수 있게 모든 교육환경이 완벽하게 갖추어져있음을 피부로 느끼게 된다.

가상교실 또한 희한하다. 소학교단계에서 배워주는 자연과 목수업시간에 실지 교편물과 모형만으로는 자연속에 있는 모든것을 보여줄수 없다. 그리하여 방대한 령역을 가진 가상교편물들을 수업에 리용할수 있게 한것은 그야말로 풍부한 교수자원을 제공하는셈이다.

이 모든것이 첨단교육설비들에 의하여 실현되고있다.

지구와 태양 등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배워줄수 있게 수백가지 프로그람이 갖추어져있는 구면현시기, 놀이를 즐기는 어린이들의 심리에 맞게 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이 새롭게 개발한 모래다기능칠판 등을 보아도 그렇다.

그 어느곳에 들려보아도 교육과학성과에 토대하여 교육의 과학화, 정보화, 현대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대학은 나날이 비약하는 주체교육의 면모를 과시하며 후대교육의 원종장으로 빛나고있다.

다기능홀로 꾸려진 체육관, 과학기술전당의 축소판인 도서관, 멋진 실내수영장과 기숙사 등 모든 교육조건과 환경이 훌륭하게 갖추어진 대학의 모습 또한 이곳을 찾는 사람들속에서 경탄을 불러일으키고있다.

하기에 대학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그토록 기뻐하시며 우리의 미래를 담당한 교육자들에게 저 하늘의 별이라도 따준것 같고 금방석을 마련해준것 같은 심정이라고, 조국의 창창한 미래가 눈앞에 선히 그려진다고 크나큰 만족을 표시하신것 아니랴.

정녕 절세위인의 숭고한 념원이 비낀 대학에서 우리는 만리마속도로 전진하는 주체교육의 오늘과 함께 인재강국, 사회주의교육강국의 래일을 가슴뿌듯이 그려볼수 있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리충성

새 세기 교육혁명의 주인공으로 준비해갈 드높은 열의

만민의 칭송을 받으시는 영원한 태양

오늘 우리 공화국은 국제무대에서 일심단결된 정치사상강국, 뚫 안되는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 수소탄까지 보유한 당당한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그 위용을 떨치고있다.

우리 조국의 빛나는 이 모습은 선군의 위력으로 조국과 혁명을 믿음직하게 수호하시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만년토대를 쌓아올리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오늘도 국제사회는 세계적인 기적을 창조하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금치 못하고있다.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위원장은 김정일동지께서는 백두산의 아들로 탄생하시여 인류자주위업의 운명과 전도를 책임지고 승리에로 이끌어오시였다고 하면서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령강중심의 세계정치구도에 파렬구를 내시고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굳건히 수호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업적을 높이 칭송하였다.

스위스조선위원회, 스위스주체사상연구소조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미제와의 정치군사적대결이 첨예하게 벌어지고있던 시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시였다고 하면서 그이께서는 필승의 선군정치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전쟁책동을 분쇄해버리시였다, 그이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모시여 사회주의조선은 불패의 강국으로, 세계사회주의보루로 더욱 강화발전되였다고 강조하였다.

인도네시아다양성당 전국지도리사회 총위원장은 이렇게 언급하였다.

《김정일각하는 탁월한 선군정치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온갖 압살책동을 짓부시고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시였으며 강국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신 위대한 령도자이시다.

조선이 막강한 핵억제력을 갖추고 주체의 핵강국으로서의 위용을 남김없이 과시하고있는것은 그이의 현명한 령도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김정일각하는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인민을 위한 현지지도의 길을 쉬임없이 이어가신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다.

나라의 부강발전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자신을 깡그리 바치신 그이의 성스러운 혁명생애는 세기와 더불어 길이 빛날것이다.》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사회주의위업, 세계자주화위업실현의 앞길을 밝혀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리론적업적은 그 혁명성과 과학성, 불패의 생활력으로 하여 만사람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로씨야주체사상연구협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정일동지의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에 의하여 진보적인민들은 사회주의의 과학성과 진리성, 승리의 필연성에 대하여 확신하게 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가장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압살책동을 짓부시고 조선의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시였다.

세계 진보적인민들이 나라의 진정한 자주와 독립을 이룩하자면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깊이 연구하여야 한다.》

에스빠냐에 본부를 둔 조선과의 친선협회 위원장은 위대한 김정일대원수의 선군혁명령도와 애국애민의 헌신에 의하여 조선인민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을 과감히 짓부시고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할수 있었다, 진보적인류는 김일성주석께서 창시하시고 김정일대원수께서 심화발전시키신 김일성-김정일주의가 구현된 조선의 사회주의를 선망의 눈길로 바라보고있다고 말하였다.

어찌 그뿐이랴.

기네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전국위원회 위원장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각하께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자주시대의 지도사상으로 발전풍부화시키시였다. 그이께서는 온 사회가 하나의 사회정치적생명체로 결합된 일심단결을 이룩하시고 조선을 불패의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 핵보유국으로 전변시키시였다. 김정일각하는 조선의 강성번영과 인류자주위업수행에 특출한 공헌을 하신 절세의 위인이시다.》고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였다.

도이췰란드공산당 위원장과 도이췰란드반제연단 위원장은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기치를 높이 추켜드시고 사회주의건설과 조국통일, 인류자주위업을 승리에로 이끌어오시였으며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인민의 행복을 위한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헌신에 대하여 격찬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위업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체스꼬슬로벤스꼬공산당 중앙위원회 비서는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조선인민이 김정일동지를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모신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시고 김정일동지께서 강화발전시켜오신 조선의 혁명위업은 오늘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조선은 핵보유국,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으로 더욱 위용떨치고있으며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전쟁도발책동에 당당히 맞서나가고있는것이다. 조선인민은 나라의 존엄과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서 반드시 최후승리를 이룩할것이다.》

그렇다.

진보적인류가 한결같이 칭송하듯이 우리 장군님은 력사에 찾아볼수 없는 가장 빛나는 업적을 이룩하신 위인중의 위인, 희세의 정치원로이시다.

조국과 인류앞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장군님의 영원불멸할 업적은 오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더욱 찬연한 빛을 뿌리고있으며 그이의 령도따라 나아가는 우리 공화국의 앞길에는 오직 승리와 번영만이 있을것이다.

정 원 준

제 운명을 망칠 야망을 버리라

조선반도정세완화로 열병을 앓는 일본반동들의 고약한 속통머리가 밑바닥까지 드러나고있다.

최근 일본당국이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를 노린 조선의 《미싸일공격》이 발생할 경우 일본인관광객들의 신속한 피난을 위한 준비태세를 갖춘다고 하면서 올림픽경기대회장주변의 지하주차장을 비롯한 대피소들에 대한 조사놀음을 벌렸다.

여기에 합세하여 일본국회 중의원이 조선의 《미싸일발사》에 대비하여 460여명의 의원들이 회의장밖으로 긴급히 탈출하는 대피훈련광대극을 벌릴 계획을 세웠다. 국회의원들이 지진에 대비하여 보호모자를 쓰는 훈련을 진행한적은 있어도 회의장밖으로의 탈출소동은 처음이라고 한다.

조선반도에서 정세격화의 불씨를 되살려보려고 사그라져가는 대결의 재무지를 정신없이 쑤셔대는 간악한 섬나라족속들의 히스테리적발작이다.

올림픽경기대회를 노린 《미싸일공격》나발은 반공화국대결에 환장한 정치지능아들의 무지막지한 악담, 돈 끼호떼도 얼굴을 붉힐 낯도깨비같은 수작이며 흑백을 전도한 궤변이다.

조선반도에서 보처럼 안정에로 방향을 잡은 태세의 흐름이 우리의 평화수호의지와 민족애의 대응단에 따른 결과이라는것은 국제사회의 일치한 주장이다.

조선반도에 긴장격화의 비상사태를 불아오는 장본인은 아침저녁으로 《최대의 압박》과 군사적선택을 떠들어대는 미국과 그에 맞장구를 치며 해외팽창현혹증에 미쳐있는 일본반동들이다.

아메바거리들이 작은 거짓말보다 큰 거짓말에 더 잘 속는다는 지난 세기 나치스도이췰란드의 파렴치한 교리로 자국민들을 얼려먹고 국제사회까지 우롱하려 하고있다.

섬나라정객들의 수법이 너무도 치졸하고 저급하다.

일본수상 아베가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 개막식에 손님이라는 감투를 쓰고 머리를 들이밀고는 우리에 대한 《최대의 압박》을 떠들어대며 분위기를 흐려놓는 짓은 속내가 보다 명백해졌다.

흉악한 정치적목적실현에 들뜬 아베패당이 자국의 수도복판에서 벌린 대피훈련소동으로도 성차지 않아 올림픽무대에서까지 광대극을 연출하려고 꾀하고있다. 경기장에서 고무풍선이 터져도 조선의 《미싸일공격》이라고 호각을 불어대며 대피소동을 피울 판이다.

세계는 조선반도의 정세안정을 파괴하려고 남의 대사에 제를 뿌리는것도 모자라 대결의 칼을 물고 현해탄을 건너와서까지 뒤쩌기하는 진짜 정화파괴자들이 누구인가를 똑똑히 보고있다.

일본국회 중의원 의원이라는자들까지 조선의 《미싸일공격》에 대처한 대피훈련소동에 합세해나선것은 참으로 불륜전이다. 조선의 《미싸일위협》설에 그 무슨 신빙성을 부여해보려고 짜낸 궁여지책이다.

국회의원들까지 회의장밖으로의 긴급탈출을 떠들며 반공화국광대춤을 추어야 할 정도이니 일본정계가 통째로 우리와의 대결에 환장이 되였다. 아주 더럽게 미쳤다.

일본반동들은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유치한 속구구로 누워서 침뱉기를 하고있다. 분수에 넘치는 야망이 섬나라에 돌이킬수 없는 재앙을 불러올수 있다.

리 효 진

북침핵전쟁책동을 규탄하는 집회

도 꾜 에 서 진 행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일본지역위원회가 7일 일본 도꾜에서 미국의 북침핵전쟁책동을 규탄하는 집회를 진행하였다.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일본지역위원회 성원들과 동아시아시민련대에 망라된 일본의 사회, 시민단체인사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집회에서 6.15일본지역위원회 의장 손형근을 비롯한 발언자들은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일본이 북남관계개선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를 하고있다고 단죄하였다.

그들은 대조선적대시정책을 고집하는 트럼프정권이 이번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가 끝난 후에 대규모북침전쟁연습을 강행하려 하고있다고 하면서 이것은 평화와 통일의 흐름을 막고 또다시 조선반도의 정세를 격화시키는 용납 못할 행위라고 규탄하였다.

미국이 북침전쟁연습을 걷어치우고 조선과 대화를 진행해야 한다고 그들은 주장하였다.

그들은 만일 미국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대와 항의에도 불구하고 북침전쟁연습을 끝끝내 강행한다면 대규모적인 반미투쟁에 직면하게 될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집회가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북침전쟁연습중지를 요구하는 항의문을 전달하기 위해 일본주재 미국대사관으로 향하였다.

집회장소를 차단하고있던 일본경찰들이 이들을 제지하였다.

이에 분노한 참가자들은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하라!》고 웨치면서 강력히 항거하였다.

참가자들은 미국대사관을 향해 미국이 북침전쟁연습을 중지하고 조선과의 평화협정체결에 나설것을 요구하는 항의문을 랑독하였다.

무덤속에 처박아야 할 친미대결광

남조선국방부 장관 송영무가 대세의 흐름에 역행하는 대결망발을 또다시 늘어놓아 온 겨레의 치솟는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얼마전 싱가포르에서 진행된 《다자안보회의》라는데 참가한 이자는 《북이 핵무기를 사용한다는것은 시대착오적발상》이라느니, 《한미에 핵무기를 사용하면 북정권이 지도에서 지워질것》이라느니 하고 떠벌였다.

북과 남이 힘을 합쳐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를 성과적으로 치르며 얼어붙었던 북남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는 때에 송영무가 이러한 대결망언을 꺼리낌없이 줴쳐대며 돌아치는것은 미국의 악랄한 대조선적대시정책에 적극 추종하여 모처럼 마련된 북남관계개선분위기를 해치려는 불순한 망동이다.

이미 폭로된바와 같이 미국은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를 성대히 치르어 민족의 존엄과 위상을 내외에 힘있게 떨치는 우리의 제의와 노력에 매우 불편해하면서 악착하게 훼방질을 하고있다. 남조선당국에 《제재결의에 위반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판게개선은 북핵문제해결과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다.》고 못박는 한편 내외에 우리의 정치군사적《위협》을 극대화하기 위해 미쳐날뛰고있다.

조선반도에 평화분위기가 무르익을수록 북침핵전쟁의 명분이 사라지고 아시아제패전략실현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는데로부터 북과 남을 영원히 대결하게 만들고 이 땅에 항시적인 정세긴장을 조장하려는것이 미국의 음흉한 심보이다.

이러한 때 조선민족의 한성원이라면 제정신을 가지고 민족의 리익에 맞게 분별있게 처신해야 할것이다.

그러나 송영무는 온 겨레가 지향하는 동족대결의 종식이 아니라 미국의 반공화국압살전략에 따르는 대결격화를 위해 동분서주하고있다.

그가 미국과 남조선에 대한 우리의 핵무기사용을 애써 가상하면서 재기를 부렸는데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의 검은구름이 어디에서 밀려오고 그 근원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미국과 남조선의 사대매국세력이 남조선에 핵무기를 끌어들이고 년대와 세기를 이어 우리를 핵으로 위협하지 않았고 지금처럼 《북과의 전쟁》을 로골적으로 떠들며 우리를 먹어보려고 미쳐날뛰지 않는다면 우리의 핵보유도 없었을것이고 그들자신이 그처럼 불안해하지 않아도 될것이다.

우리는 바로 미국의 핵위협때문에 미국본토를 재가루로 만들수 있는 자위의 전쟁억제력을 보유한것이다.

미국이 우리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철회하고 핵위협을 걷어치우면 우리의 핵보검이 미국을 겨냥하는 일도 없을것이다.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이 무엇보다 귀중하기에, 평화가 그처럼 소중하기에 우리는 전략국가의 높은 지위를 피로써 쟁취하고 그 위력으로 조선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의 새 전기를 보란듯이 열어나가고있다.

더우기 미국은 이번 《핵태세검토보고서》에서 적수들의 공격이 핵공격이든 비핵공격이든 판게없이 핵선제공격을 가한다는것을 정책화하고 전세계에 핵선전포고를 하였으며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를 앞둔 남조선과 그 주변에 핵전략수단들을 대거 들이밀면서 전쟁준비에 열을 올리고있다.

송영무가 눈뜬 소경이거나 머저리가 아니면 이 엄연한 현실들은 알고도 남음이 있겠는데 굳이 모르쇠를 하면서 우리를 핵전쟁도발자처럼 보사하며 한사코 동족압살을 고취하는것은 그가 상전에게서 점수를 따는데나 신경을 쓰며 밥벌이를 하는 천하의 속물, 외세의 더러운 주구라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준다.

이런 정신빠진 작자가 남조선군부에 들고앉아 망녕든 짓거리를 일삼는 한 우리 민족이 어떤 화를 입을지 알수 없다.

민족의 수환이고 수치이며 재앙덩이인 송영무같은자들이야말로 영원히 무덤속에 보내여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해야 할 인간오작품, 력사의 퇴물들이다.

남 조 선 단 체

북남관계개선을 가로막는 미국을 규탄

남조선인터네트신문 《통일뉴스》에 의하면 6일 반전평화를 위한 정당,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전쟁반대 평화실현 국민행동》이 서울의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북남관계개선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미국을 규탄하였다.

발언자들은 미국이 조선반도에 평화의 흐름이 조성되기만 하면 대결과 전쟁소동을 일으키고있다고 단죄하였다.

이 땅에 남북이 화해하고 우리 민족끼리 하나되자고 하는 기운이 솟아오고 전세계가 이를 환영하고 기뻐하는데 유독 미국만이 화해와 단합을 반대하고있다고 그들은 비난하였다.

그들은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해 미국은 이 땅을 떠나야 한다고 하면서 온 민족이 힘을 합쳐 평화를 이룩할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와 남북관계개선에 훼방을 놓는 미국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미국이 계속 군사적긴장상태를 조성하고 남북화해, 통일의 길을 가로막는다면 온 민족의 반미반전투쟁에 직면하게 될것이라고 단체는 경고하였다.

련이어 드러나는 광주대학살만행의 진상

남조선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광주인민봉기 참가자들에 대한 전두환군사파쑈도당의 야수적인 학살만행의 진상이 또다시 밝혀졌다.

5.18특별조사위원회가 5개월동안 62만페지에 달하는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190개의 군부대와 당시 군관계자 등 12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전두환군사파쑈악당은 1980년 5월 21일부터 어리차례에 걸쳐 공격유직승기에서 봉기자들과 시민들을 기관총으로 사격할데 대해 명령하였다.

그에 따라 당시 광주인민봉기진압에 40여대의 직승기가 동원되여 5월 21일과 27일 광주시민들에게 무차별적인 기총사격을 가하였다.

직승기들은 시민들에게 발칸포사격까지 가하였다고 한다.

또한 폭격기와 전투기들이 심탄을 싣고 광주시를 폭격하기 위해 대기하고있었다는 자료도 나왔다.

광주인민봉기자들에 대한 진압을 전두환군사파쑈악당이 직접 지휘하였으며 여기에 남조선의 륙, 해, 공군이 동원되였다는것이 확인되였다.

치떨리는 광주대학살만행의 진상은 전두환군사깡패와 같은 친미보수패당이야말로 력사의 심판을 받아야 할 살인귀무리라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남조선시민단체 검찰내에 만연된 성폭력실태의 조사를 요구

서울에서의 보도에 의하면 남조선의 참여련대가 1월 31일 성명을 발표하여 검찰내에 만연된 성폭력행위를 철저히 조사할것을 요구하였다.

성명은 한 녀성검사가 검찰내의 성폭력실태를 공개한데 대해 밝혔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내부의 성폭력행위를 어떻게 처리해왔는지 적라라하게 보여주고있다고 성명은 단죄하였다.

성명은 특히 검찰관계자들이 검찰내 성폭력실태를 공개한 피해자에게 인신보복까지 하며 박해를 가하고있다고 규탄하였다.

이러한 사태는 검찰내의 성폭력이 조직적으로 감행된것이라는것을 말해준다고 하면서 성명은 법무부와 검찰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오늘의 세계

전투기조우사건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최근 흑해상공에서 미해군의 《EP-3E》정찰기와 로씨야의 《Cy-27》전투기가 조우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당시 미국의 정찰기는 로씨야에 대한 정탐활동을 위해 흑해상공에서 이 나라 국경쪽으로 접근하였다. 정체불명의 비행기를 발견한 로씨야측은 《Cy-27》전투기를 리륙시켰다. 그것이 미군정찰기라는것을 확인한 로씨야전투기는 그에 접근하여 자국령공에로의 침입을 저지시켰다.

이번 사건을 놓고 미국무성 대변인은 로씨야전투기가 흑해의 국제공역에서 《안전하지 못한 동작》으로 저들의 정찰기를 위협하였다고 불만을 표시하였다. 하지만 로씨야국방성은 《Cy-27》전투기의 비행이 령공리용에 관한 국제법에 엄격히 준하여 진행되였다고 밝혔다.

흑해상공에서 로씨야와 미국의 군용기들이 조우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1월에도 미국의 《P-8 로씨이돈》해상초계기와 로씨야의 《Cy-30》전투기가 조우하는 사건이 있었다. 당시 로씨야전투기는 미국초계기로부터 불과 10여m거리까지 접근하여 좌우로 기동하면서 제연소장치를 가동시킨후 초계기앞으로 비행하였다. 그때에도 미국은 저들의 초계기가 로씨야전투기의 배후에 생기는 세찬 기류에 휘말려들어 큰 사고를 낼번 하였다고 아부재기를 쳤다.

비행기들사이의 접근이 충돌위험을 동반한다는것은 누구나가 다 아는 사실이다. 전투기와 같이 속도가 빠른 비행기들일수록 그 위험성은 더 크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놓고 로씨야가 난도높은 접근비행을 통해 흑해에서 날로 로골화되고있는 미국의 도발적인 군사적책동을 절대로 방관시하지 않겠다는 강경립장을 보여주었다고 평하고있다.

로씨야가 의도적으로 무력행사를 할만큼 흑해에서는 이 나라를 겨냥한 미국의 군사적움직임이 점점 한계를 넘어서고있다.

미국은 나토의 함선과 비행기들을 내몰아 《정상적인 순찰》의 미명하에 이 수역에서 로씨야무력에 대한 감시와 정찰행위를 공공연히 감행하고있다. 《우발적인 사태》를 가상한 합동군사연습도 더 자주, 더 강도높게 벌리고있다.

미국은 로씨야의 《침략》에 대비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곳에서 무력증강책동에 더욱 열을 올리고있다. 지난해 나토는 루마니아에 다국적부대를 창설한다고 선포하였다.

미국은 나토의 군사훈련에 참가한다고 하면서 루마니아에 자기의 병력을 더 들이밀었다. 뽈스까에는 사단규모와 맞먹는 미군의 기계화부력이 전개되였다. 루마니아에 배치된 미국의 지상배비형요격미싸일체계 《이지스 어서》는 유럽에 있는 나토의 요격미싸일체계와 련결된 후 전반적인 흑해지역을 통제할수 있는것으로 하여 《이스깐데르》미싸일을 포함한 로씨야의 각종 전략무기들에 커다란 압력을 조성하고있다.

보는바와 같이 미국은 흑해지역에서 어떻게 해서나 잠재적적수인 로씨야를 제압하고 군사적패권을 쥐려 하고있다.

오래전부터 미국은 흑해에서 로씨야의 영향력을 약화시킬것을 획책하면서 흑해주변나라들을 야금야금 자기의 손아귀에 걸어쥐기 시작하였다. 철과 지금에 와서 이 나라들은 모두 나토에 가입하였거나 미국과 밀접한 군사적련계를 맺게 되였다. 미국은 최근년간에 들어와 우크라이나사태를 기화로 하여 주변나라들을 로씨야와의 군사적대결에로 내몰려 하고있다.

미국은 이미 로씨야의 코앞에까지 저들주도의 나토무력을 전개한 상태에서 흑해까지 장악하게 되면 로씨야를 군사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전략실현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열수 있다고 보고있다.

이에 대응하여 로씨야도 군사적대응조치들을 취하고있다. 얼마전에도 흑해연안의 항구도시 세바스또뽈에 로씨야의 《C-400》고사로케트종합체들이 새로 전개되여 전투근무에 진입하였다. 지난해 로씨야대통령과 국방상은 흑해함대에 새형의 군함들을 보충해주는것을 로씨야군함건조계획의 우선적인 위치에 놓음으로써 흑해지역에서 날로 격화되고있는 형세에 대처하여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이번 전투기조우사건은 로미대립의 필연적인 산물이다.

본사기자 안 철 권

세력권확대를 둘러싼 로씨야와 서방간의 대결

얼마전 로씨야신문 《네자비씨마야 가제따》는 《서방과의 투쟁에서 동맹국들에 의거하고있는 모스크바》라는 제목의 글에서 서방이 자기 나라의 국경부근에 《차단복도》를 설치하여 이전 쏘련지역에 대한 모스크바의 영향력을 억제하려 하고있다고 전하였다. 그러면서 자국이 서방의 책동에 맞서기 위하여 이전 쏘련지역 나라들과 협조하고있다고 보도하였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움직임이 새해에 들어와 눈에 띄게 나타나고있다.

로씨야대통령 뿌찐은 유라시아경제동맹 성원국들인 벨라루씨, 까자흐스딴, 끼르기즈스딴, 아르메니아의 수반들에게 보낸 호소문에서 2025년까지 목표로 정한 수자식경제의 발전을 다그칠것을 강조하였다. 국가관리와 공업, 판세조정체계를 비롯한 기타 분야들에 고도기술을 도입하고 공동의 경쟁력있는 기술 및 과학생산체계를 가동시키는 동시에 태동력, 생태학, 의학, 우주 등 여러 분야에서 판게를 확대강화할것을 호소하였다.

유라시아경제동맹을 유럽동맹과 어깨를 겨룰수 있는 위력한 동맹으로 만들고 그의 급속한 발전이 친서방으로 기울어지고있는 이전 쏘련카맹공화국들에 교훈을 주는 계기로 되게 하겠다는것이 로씨야의 의도이다.

지난해 유라시아경제동맹의 국내총생산액은 1.8%, 무역량은 30% 장성하였다. 현재 로씨야는 이러한 점을 특별히 강조하면서 해당 성원국들의 경제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라시아경제동맹의 효과성에 대해 선전하고있다. 이 모든것은 앞으로 반로씨야세력을 규합하기 위한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력의 책동이 보다 우심해지리라는것을 예측하여 유라시아경제동맹을 더욱 강화해나가려는 계획에 따른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력은 이미 오래전부터 로씨야의 주변나라들을 규합하여 이 나라 국경부근에 《차단복도》를 설치할것을 목표로 내세우고 그 실현에 광분해왔다. 지난해 나토는 루마니아에 다국적부대를 창설한다고 선포하고 여기에 루마니아와 이딸리아, 카나다 등 9개 나라의 3 000-4 000명의 병력을 인입시켰다. 미국도 나토의 군사훈련에 참가한다는 미명하에 뽈스까를 비롯한 동유럽나라들에 기계화사단과 병력을 전개하였다.

한편 유럽동맹은 동부동반자관계를 강화해나가고있다. 2009년에 유럽동맹이 내온 동부동반자관계는 6개의 이전 쏘련카맹공화국들인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벨라루씨, 그루지야, 몰도바, 우크라이나와의 지역협조발전을 목적으로 한 유럽동맹의 다부저계획이다. 유럽동맹의 목적은 이전 쏘련카맹공화국들을 끌어당겨 로씨야의 세력권에서 떼여내고 저들의 지배권에 넣자는데 있다.

지난해 벨지끄의 브루쎌에서 동부동반자관계 제5차 수뇌자회의라는것을 벌려놓은 서방세력은 우크라이나, 그루지야를 비롯한 이전 쏘련카맹공화국들을 초청해놓고 일부 나라들에 무사증제를 포함한 경제직특혜를 부여한다고 요란스레 광고하였다. 지어 로씨야주도의 유라시아경제동맹 성원국으로 되여있는 아르메니아와도 포괄적인 협정을 체결하고 그 무슨 《성공》에 대해 떠들었다.

머지않아 유라시아경제동맹 성원국인 벨라루씨도 서방과의 교섭에 나설수 있다고 외신들은 평하고있다.

서방의 이러한 전술에 대처하여 로씨야는 유라시아경제동맹을 강화해나가고있다.

로씨야가 주도하는 유라시아경제동맹은 2014년에 창설되였고 그와 관련한 조약은 2015년부터 효력을 발생하였다. 창설당시 동맹은 로씨야와 까자흐스딴, 벨라루씨를 망라하고있었다. 그후 끼르기즈스딴, 아르메니아가 동맹에 가입하였다.

올해 로씨야는 유라시아경제동맹 의장직을 맡았다. 이러한 조건은 로씨야가 유라시아경제동맹의 급속한 발전에 영향력을 행사할수 있는 좋은 기회로 된다. 경제동맹의 통합사업에서 더욱 속도를 내고 다른 대륙 경제기구들과의 관계를 밀접히 하여 동맹의 영향력을 세계적판도에로 넓혀나가려는것이 로씨야의 의도이다.

얼마전 모스크바에서 아르헨띠나대통령과 만난 로씨야대통령 뿌찐은 무역 및 투자관계를 발전시키기로 합의하였다. 회담후 뿌찐은 《유라시아경제동맹과 남아메리카공동시장과 같은 통합기구들을 통해 쌍무관계를 발전시키려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앞으로 유라시아경제동맹이 로씨야가 의도하는대로 그 영향력이 현저히 높아지면 로씨야의 대외정책실현에 더욱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것은 명백하다.

이전 쏘련지역에서 상대방을 밀어내고 자기 세력권을 구축해나가려 하고있는것이 로씨야와 서방사이의 대결에서 주목되는 또 하나의 정세발전이다.

본사기자 김 승 겸

보다 적극화되는 자연에네르기개발

화석에네르기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한 인류의 노력은 오늘날에 와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태양열, 지열, 풍력, 수력 등 자연에네르기들이 사회경제발전에 광범하게 리용되고있다.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에 도이췰란드에서는 풍력을 리용한 전기생산량이 석탄에 의한 전기생산량을 릉가하였다. 마로끄에서는 자연에네르기에 의한 전력생산량이 나라의 총전력생산량의 30%를 넘었다. 이 나라에서는 2030년까지 전력수요의 52%를 자연에네르기로 충당할것을 목표로 내세웠다. 이밖에도 많은 나라들에서 자연에네르기리용률이 급격히 높아지고있다.

수소에네르기개발리용이 추세로 되고있다.

얼마전 세계의 자동차 및 에네르기관련 기업 등이 참가하는 수소협의회가 보고서를 발표하였는데 그에 의하면 2050년까지 세계의 전체 에네르기소비량의 약 20%를 수소가 맡을것으로 전망되고있다. 이 전망이 현실화되는 경우 이산화탄소배출량을 현재에 비해 년간 약 60억t 줄일수 있다고 한다.

온도차에 의한 에네르기개발이 주목을 받고있다. 자연에 존재하는 온도차 즉 낮과 밤의 온도차, 대기와 땅의 온도차, 지구겉면과 지하의 온도차 등을 통해 에네르기를 얻을수 있다.

이 에네르기는 항시적으로 무한대하며 일단 그것이 집중되여 방출되면 그 힘은 매우 크다고 한다.

현재 어느 한 나라에서는 바다물온도차를 리용한 대규모발전소를 건설하고있다. 만일 남위 20° 로부터 북위 20° 사이의 바다전체를 전력생산에 리용한다면 바다물표면의 온도가 1℃ 낮아질 때 얻어지는 에네르기는 약차하다고 한다.

온도차를 리용한 에네르기생산이 실용적의의가 있다는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이러한 사실들은 자연에네르기개발이 날이 갈수록 보다 적극화되고있다는것을 말해준다.

화석연료의 고갈이 눈앞에 있고 환경보호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는 오늘날 자연에네르기의 개발리용은 인류의 미래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업이다.

나날이 적극화되는 자연에네르기개발은 인류를 보다 문명한 세계에로 이끌어갈것이다.

본사기자 리 철 혁

ㄱ-810242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등록번호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편집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